신천지 이단 신포지엄 자료

1. 신천지의 이단적 가르침의 실상

발제자: 이승구 박사

현,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조직신학 교수

2. 신천지 성구풀이에 대한 개혁신학적 비판

발제자: 김성봉 박사

현, 대신총회신학교 교수부장

현, 신반포중앙교회 담임목사

3. 사이비 종교집단 '신천지' 비유풀이의 실제의 예

발제자: 신현욱 소장

현, 예장(합동) 초대교회 담임교역자

현,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 구리상담소장

신천지대책전국연합 대표

기독교한국침례회
힐링교회

신천지의 이단적 가르침의 실상

발제자: 이승구 박사

총신대학교 (B.A)
서울대학교 대학원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M.Div.)
St. Andrews 대학교 신학석사 및 박사(Ph.D.)

현,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조직신학 교수

I. 신천지 이단성의 근본: "신약의 목자", "이긴자"를 믿도록 함

II. 신천지의 이단성
1. 계시론의 문제: 자신들이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주장의 문제점
2. 창조론의 문제점
3. 타락 이해의 문제점
4. 신천지의 비성경적이고 비기독교적인 구원 이해
5. 예수님과 성령님과 삼위일체에 대한 신천지의 잘못된 이해
6. 구속에 대한 신천지의 잘못된 이해
7. 종말과 천년 왕국과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신천지의 비성경적 이해
8. 사도신경을 거부하는 신천지
9. 타종교에 대해 관대하려고 하는 신천지?

III. 신천지의 자의적인 성경 해석
1. 창조에 대한 해석의 문제들
2. 신천지 사상에 근거한 자의적 해석과 왜곡
3. 도식화된 해석의 연결로 인한 왜곡된 성경해석
4. 좁은 해석으로 인한 왜곡의 예들
5. 신천지에 적용하면서 나타난 본문의 자의적 해석과 왜곡
6. 알레고리적 해석
7. 잘못된 이해와 성경 왜곡

IV. 결론

신천지의 이단적 가르침의 실상[1]

신천지는[2] 자신들이 이단이 아니고 이전의 예수님과 같이 이 세상에서 이단이라고 비판받으며[3] 무고히 핍박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에 있어서 그들은 매우 적극적이다. 그들은 말한다: "오늘날 온 세상이 신천지를 이단시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과 성령은 신천지를 이단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라고 하신다(계 1:5-6, 5:9-10, 20:6, 21:1 참고)."[4] 따라서 그들은 신천지가 정도(正道)라고 하며,[5] 자신들이 "정통"이라고 한다.[6] 더 나아가서, 그들은 "핍박하는 곳에서 핍박받는 곳으로 가는 자가 피난한 자요 구원받는 자"라고 주장한다.[7] 그들은 "씨 뿌리는 복음도 목자도 신약의 예언도 끝이 나며, 만국이 와서 경배할 곳 증거 장막 성전이 열린다"고 한다.[8] 즉, "기독교 교회 시대의 끝이 있고, 새 시대가 창조된다"고 한다.[9] 더 강하게는 "예수님의 선천 세계는 끝이 나고, 후천의 새 하늘과 새 땅(신천지)의 세계가 도래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다.[10] 그렇게 되면 "신약을 이룬 영원한 복음이 있게 되며, 하늘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신천지에 임해 옴으로 새 예루살렘성 증거장막성전 시대가 된다"고 주장하면서,[11] 자신들이 바로 그 증거장

---

1) 이 제목은 신천지가 사용하는 용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한 제목이다. 그들은 요한계시록이 예언한 것의 실상이 자신들에게서 실현되어 있다고 하면서 실상이라는 말을 즐겨 사용한다. 그러나 그들의 실상이 이단임을 밝히 드러내려고 이런 용어를 사용하였다. 신천지는 자신들의 주장을 때때로 바꾸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인 생각은 동일한 것이다. 이전에 그들의 생각을 체계적으로 표명했던『신탄』같은 책에서 표현된 것은 신현욱 소장이 그들의 교육장으로 있을 때에 나온 것이기에 자신들의 입장과 다를 수도 있다고 하기에 근자에 신천지가 가르치는 책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이 논의를 하여 갈 것이다.

2) 그들은 자신들을 "신천지"라고도 하지만 주로 "신천지 예수교"라고 칭한다. 신천지 총회 교육부,『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과천: 도서출판 신천지, 2009, 재판 2010), 60, 104, 107, 109, 110, 112, 114, 115, 116, 118, 120, 121, 125, 126, 130, 131, 136, 137, 139, 143, 152, 161, 169, 174, 176, 179, 183, 186, 189, 190, 191, 196, 217, 219, 221, 223, 224, 226, 228, 232, 237, 244, 245, 251, 267, 271, 288. 301, 312; 신천지 총회 교육부,『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과천: 도서출판 신천지, 2010), 30, 35, 36, 37, 46, 47, 62, 88, 109, 110, 146, 149, 159, 177, 179, 180, 193, 195-97, 200-14, 216, 227, 230, 264, 266, 270, 295.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따라서 종교의 교주는 창조주 하나님(『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18, 279; 신천지 총회 교육부,『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14)이요, 자신들의 교주는 예수님이며(『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58, 116, 174, 210, 220, 232, 245) 이만희는 "신천지예수교 총회장"이라고 한다(『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60, 109, 110, 137, 174, 313, 314, 316, 317, 326; 신천지 총회 교육부,『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155). 그러나 그들이 이만희를 어떻게 생각하는 지는 후에 자세히 논의 될 것이다.

3) 신천지 총회 교육부,『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33, 77, 97, 107, 112, 117, 122, 125, 138, 172, 183, 189, 221, 224, 255, 277; 신천지 총회 교육부,『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77, 125, 143, 306.

4) 신천지 총회 교육부,『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33. 또한 같은 책의 60도 보라.

5) 신천지 총회 교육부,『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33; 신천지 총회 교육부,『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과천: 도서출판 신천지, 2010), 11, 13, 14. Cf. 신천지 총회 교육부,『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131.

6) 신천지 총회 교육부,『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217, 269("참 정통"), 278("참 정통"), 271("정통 중의 정통"), 280, 281("정통 종교"); 신천지 총회 교육부,『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195, 200.

7) 신천지 총회 교육부,『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61. 참조.『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38, 107; 신천지 총회 교육부,『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123.

8) 신천지 총회 교육부,『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92.

9) 신천지 총회 교육부,『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93. Cf. 244, 254, 290.

10) 신천지 총회 교육부,『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29, 183("오늘날은 선천(先天)이 약 2천 년 만에 가고 후천(後天)인 새 시대가 오는 때이다"), 219, 223, 264. 후에 이런 동양적인 후천 개벽 사상의 문제점이 논의될 것이다.

11) 신천지 총회 교육부,『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92f., 117, 119

막성전이라고 한다: “1984년 3월 14일(우주의 일주 해인 갑자년) 대한민국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 나타났다.”[12] 그러므로 “천지간에 신약성경이 열렸고 계시의 말씀과 예언의 말씀의 실체 곧 실상이 나타난 곳은 신천지 증거장막성전뿐이다”고 한다.[13] 그래서 “신천지 예수교는 사실상은 인류 최고의 진리의 전당이요 성읍”이라고 한다.[14] 그리고는 “첫째 부활 자가 있는 이곳이 거룩한 성 천년성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주장한다.[15]

그래서 그들은 지금 자신들에게서 “예수님께서 피로 새 언약을 하신 신약 성경의 예언(종말과 새 창조)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16] “따라서 “성도는 성경에서 시대를 분별하고 내가 가서 소속될 곳을 찾아 하나가 되어야 소망을 이룰 수 있다”고 하면서 참으로 구원을 받으려면 신천지에 속해야 한다고 주장한다.[17]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는 “이긴 자 외에는 구원할 목자도 없고, 이긴 자가 있는 곳 외에는 구원 받을 곳도 없는 것이다”고 하며,[18]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도 말씀도 오직 신천지에만 있으므로, 이곳에서 구원이 있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창조된다”고 하기 때문이다.[19] 그들은 말한다: “신약이 이루어지는 오늘날 증거장막성전 곧 영적 시온산 외에는 구원받을 곳이 없다.”[20] 그러므로 그들의 생각에 의하면 “영이 죽은 자들 곧 바벨론이라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생기를 받아 거기서 나와 신천지로 오는 것(계 14:1-5의 시온산에 추수되어 오는 것)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요, 이것이 생명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다.[21] 이런 뜻에서 그들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신천지의 계시 신앙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자가 없다”고 주장하며,[22] “세상 교회 곧 진리가 없는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려면 신천지예수교회로 와야 한다”고 주장한다.[23] 이를 다른 말로 이렇게도 표현한다: “우리 신천지예수교는 약속대로, 노아 때와 같이 오늘날 구원의 방주이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지키는 자는 천국 방주에 와서 탈 것이다.”[24]

결국 신천지의 핵심은 “약속의 목자가 와서 후천 세계를 창조하게” 되는데 “성경은 한마디로 이 사실을 깨달아 믿으라고 당부하신 말씀이라 할 수 있다”는 주장에 있다고 할 수 있다.[25] 이상의 간단한 소개에서도 아주 자명하게 드러나는 바이지만, 이런 주장을 하는 신

---

12)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311. Cf.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47, 230.

13)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133.

14)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88. Cf.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204.

15)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154.

16)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311, 강조점은 덧붙인 것임.

17)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93. 또한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275: “... 신약의 구원 받을 곳은 오직 약속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영적 새 이스라엘의 12지파뿐이다.”

18)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275.

19)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30.

20)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163.

21)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278.

22)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46.

23)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279. Cf.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285.

24)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62.

25)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29.

천지가 왜 이단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기로 한다.

I. 신천지 이단성의 근본: “신약의 목자”, “이긴 자”를 믿도록 함

근본적으로 신천지가 이단인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말하고 강조하는 것 같으면서도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말하는 “신약의 목자”, 그들이 말하는 “이긴 자”를 믿도록 하려 하기에 그들은 예수교가 아니고 이단이다.

신천지는 “시대마다 택하신 목자”가 있는 데, 그들은 “노아,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초림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이라고 말한다.[26] 그 중에서 “구약의 약속의 목자와 성전은 예수님이었다(요 2:19-21)”고 말한 후에 “신약의 약속의 목자와 성전은 누구인가?”라고 묻는다.[27] 그리고는 “신약 성서도 약속의 목자를 알 수 있도록 기록되어 있다”고 하면서, “신약의 약속의 목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다고 하셨다”고 하고 “진리의 성령 보혜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게 되고, 진리의 성령을 받은 목자도 주님의 이름으로 약속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된다”고 주장한다.[28] 그러면서 “약속한 **진리의 성령 보혜사와 보혜사 성령이 택한 목자가 하나가 되어**, 예언이 성취된 것과 계시의 말씀을 받아 대언하게 된다”고 주장한다.[29] 그는 계시록이 말하는 “펼친 책을 받은 한 분”이라고 언급되고, “이 사람은 계시록의 전장의 실체들을 보고 들었고 계시의 말씀을 받았다”고 한다.[30] 그리하여 그를 “계시록 책을 받아먹은 자”,[31] “종말 사건을 본 자,”[32] “계시 말씀을 받은 자,”[33] 또는 “계시 받은 자,”[34]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열린 책을 받은 자,”[35] “신약 성경에 정한 그 한 사람(계 10장),”[36] 곧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열린 계시를 받아 증거 하는 자”라고 하면서 사람들

---

26)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74.

27)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93. 그들이 말하는 “오직 한 사람”인 신약의 “약속의 목자”에 대해서 다음을 보라: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94, 96, 105, 114, 119, 123-26, 154f., 155, 157, 159, 165, 185, 193-96, 199, 202, 214, 225, 244, 261, 274, 278, 288;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16, 25, 29, 32, 34, 45-46, 52, 56, 58, 76, 77, 89, 94, 114, 135, 152, 154, 175(“약속의 사자”), 178, 187, 188, 223, 224, 227, 230, 238, 239, 245, 252, 253, 254, 266, 276, 282, 286, 293, 297, 304. 그러기에 자신들은 이만희가 예수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매우 강조하면서 이만희를 예수라고 한다고 비판하는 것을 강하게 비판한다(『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57f., 112, 118, 174;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208). 이는 이전의 자신들의 가르침을 주도하던 신현욱 소장을 비판하기 시도인 것으로 여겨진다.

28)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94. Cf. 227, 246.

29)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94, 194, 강조점은 덧붙인 것임.

30)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72, 103.

31)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282;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53, 88, 252.

32)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137.

33)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244, 246, 280.

34)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244;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39.

35)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87, 94, 97, 119, 198. Cf.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58.

36)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143.

은 이것을 “깨달아 믿고 찾아 배워야 한다”고 주장한다.[37] 왜냐하면 “지금 이 세상에는 주께서 보낸(계 10장, 겔 2-3장) 한 사람(사자)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38] 그들은 “신약의 계시 책도 예수께서 인을 떼고 열어 약속의 목자에게 줌으로 오직 그 한 목자만이 계시록의 예언과 그 예언대로 이룬 실상을 증거할 수 있다.”고 한다.[39] 그리고 신천지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이만희라는 것이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는 대언의 영이다. 이 영이 사람 속에 거하시면 그 사람을 무어라 호칭해야 하는지(요 14장) 핍박하기보다 그 답을 내어 놓자.”[40]

그래서 이만희를 때로는 “대언의 증인”이라고 하기도 하고,[41] “대언의 사자”라고 하며,[42] “주의 이름으로 온 자”,[43] “주님의 사자”(계 1:1-2, 22:16),[44] “영적 요한,”[45] “새 요한,”[46] “말세의 종, 사도 요한,”[47] “예수님이 보낸 자(사자),”[48] “공의 공도의 사자,”[49] “예수께서 약속한 목자”, “참 목자”라고 한다.[50] 그가 살후 2:1-12에 나타나는 “구원자”라는 것이다.[51]

그는 “마태복음 24장 45-47절의 예수님의 모든 소유를 받는 자”, “계시록 2, 3 장의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과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 받는 이긴 자,” “예수님으로부터 흰 돌과 만나와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을 받는 사람,”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자,” “계시록 21장 7절의 이긴 자”라고 언급된다.[52] 또한 그를 “계시록 전장의 실상을 보고 듣고 지시를 받아 전하는 자,”[53] “오리지널 하늘에서 온 진짜 정통 계시를 가르치는 목자,”[54] “계시를 받아 전하는 목자,”[55] “종말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계시록의 목자,”[56] 또는 “계시를 말하는 사람”이라고[57] 하기도 한다. 그의 “성경지식은 이 세상 목자들이 가히 상상도 생각도 못한 하늘 차원의 계시 지식이라 할 것

---

37) 신천지 총회 교육부,『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94. Cf. 278.
38) 신천지 총회 교육부,『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77, 78.
39) 신천지 총회 교육부,『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157, 199.
40) 신천지 총회 교육부,『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78.
41) 이만희,『천국 비밀, 요한계시록의 실상: 요한계시록의 예언과 성취』(과천: 도서출판 신천지, 2005), 27.
42) 신천지 총회 교육부,『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118, 265; 신천지 총회 교육부,『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113.
43) 신천지 총회 교육부,『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283-85.
44) 신천지 총회 교육부,『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280.
45) 신천지 총회 교육부,『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39, 40.
46) 신천지 총회 교육부,『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52, 53, 152, 230, 268, 301, 302, 309.
47) 신천지 총회 교육부,『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76, 77.
48) 신천지 총회 교육부,『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39, 53.
49) 신천지 총회 교육부,『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175.
50) 신천지 총회 교육부,『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57, 75, 91, 154; 신천지 총회 교육부,『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186, 53(“약속의 참 목자”).
51) 신천지 총회 교육부,『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154; 신천지 총회 교육부,『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297: (“구원자인 이긴 자”).
52) 신천지 총회 교육부,『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58. 또한 103, 118, 154, 159쪽도 보라. 신천지 총회 교육부,『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256.
53) 신천지 총회 교육부,『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265.
54) 신천지 총회 교육부,『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71.
55) 신천지 총회 교육부,『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45, 53(“신약의 계시를 받은 목자”).
56) 신천지 총회 교육부,『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94.
57) 신천지 총회 교육부,『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85.

이다"고 말하기도 한다.[58]

더 나아가서 그들은 "이 사람은 요한계시록 12장의 '여자에게서 난 자'요, ...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이며,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간 자이며, 용의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과 싸워 이긴 자이다"고 하면서, "이 이긴 자를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유업을 이를 자라고 하였다"고 한다.[59] 그리하여 그를 "유업을 받는 아들"이라고 하기도 하고,[60] "종말사건에서 만국을 다스릴 아이"라고도 한다.[61]

또한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이 그 마음에 거하시는 그 사람은 보혜사의 이름으로 오시는 것이다."라고 하면서,[62] 그를 "보혜사 성령이 임한" 분이요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는" 사람이라고 하기도 하고,[63]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보혜사(대언자),"[64] "다른 보혜사" 또는 "보혜사,"[65] "주님과 함께 역사하는 보혜사"라고 하기도 한다.[66] 또는 "예수의 이름으로 오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는 이긴 자 안에서 역사하신다."고 말하기도 한다.[67] 또 "보혜사 성령은 ... 이긴 자와 하나가 됨으로 진리의 성읍이 되었고, 온 세상에 하나 밖에 없는 생명나무가 되었다"고 하기도 하며,[68] "보혜사 성령은 이긴 자와 하나 되어 계시록을 이루신다"고 말하기도 한다.[69] 그들은 "보혜사는 직책 곧 사명이다"라고[70] 하면서 대언자 역할을 하는 자가 곧 보혜사라고 하는 것이다. "영의 보혜사(보혜사 성령)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목자는 보혜사 성령에게 말씀을 받아 성도들에게 대언한다. 기록된바 보혜사 성령은 사람 안에 거하신다 하였으니, 대언의 영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는 그 사람(목자)이 말씀을 받아 보혜사 성령과 같이 대언함으로 육의 보혜사가 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71] 후에는 아예 그를 가리켜 "영육(靈肉) 보혜사"라고 하기도 한다.[72] 또한 이와 연관하여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오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가 임하여 하나가 된 사

---

58)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118.

59)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124, 308;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40, 45, 76, 259, 261.

60)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40, 76. Cf.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124, 308.

61)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76, 77.

62)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90.

63)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227. Cf.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300("보혜사 성령과 하나 된 참 목자);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224, 230, 254.

64)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275.

65) 이만희, 『천국 비밀, 요한계시록의 실상: 요한계시록의 예언과 성취』, 표제면. 그는 아예 표제에서 이 책의 저자를 보혜사. 이만희라고 제시한다. 또한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214;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111도 보라. 그러나 그가 "보혜사 성령" 자신은 아니라는 언급도 한다(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57). 그들은 이와 같이 "보혜사 성령"과 "보혜사"를 구별한다(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212). 대언자를 보혜사라 하시면서 "보혜사 성령"도 대언자였고, 이만희도 대언자이니 그가 "보혜사 성령"은 아니지만 "보혜사"라고 하는 것이다. 후에 논의하겠지만, 그를 "육의 보혜사"라고 하기도 한다(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115).

66)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280.

67)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49.

68)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56.

69)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270.

70)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212, 215.

71)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115.

72)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116.

람을 보혜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란 말인가?"라고[73] 수사적으로 묻기도 한다. 그리하여 결국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보혜사를 보는 것이 예수님을 보는 것이 된다. 이 이유는 그 영이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이다"고 말하고, "또 보혜사의 말 곧 **보혜사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 사람의 말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된다**."고[74] 강한 이단적 언급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천지에 속한다는 것은 이만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보낼 한 목자",[75] "신천지예수교의 목자,"[76] 참 목자, 약속의 목자인 "이긴 자"요,[77] "주와 하나가 된 자",[78] 이 시대의 "생명나무"라는[79] 것이기에, 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를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된다고 하기에 신천지가 이단이다. 그들은 이 "이긴 자(약속의 목자)는 스스로 나타난 선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것이다."라고 주장한다.[80] 그러면서 "신약에서 알 것은 **이긴 자가 없으면 나라도 제사장도 구원도 없다는 사실이다**"고 하면서[81] 이긴 자의 절대적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들은 "신천지예수교의 목자는, 초림 예수님이 구약 성경대로 와서 성경대로 이룬 것 같이, 신약의 성경대로 왔고 성경대로 이루었으며, 사람의 계명이 아닌, 하늘에서 온 계시의 말씀과 성취된 실상을 증거하고 있다."고 한다.[82] 이런 맥락에서 그에 대해서 말하기를 "예수께서 열린 책의 말씀과 예언을 이룬 것을 오직 희[熙, 이만희를 뜻함]에게만 보여주고 지시하셨기에, 온 세계 중에서 희(熙)만이 신약의 성취에 대해 증거할 수 있다."[83] 그리고 이 "이긴 자도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의 본뜻에서 벗어나 이 이긴 자만 독특하게 예수님과 같이 통치하는 자가 된다고 참람 되게 말하기도 한다.[84] 따라서 "이긴 자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 없다. 이것이 새 언약 곧 신약의 예언이요, 오늘 날 성취된 실상이다."고 하면서,[85] 그에게서 배우고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것이 신천지이기에 그들이 이단이다.

그들은 "구원 받기 위해 와서 배워야 한다"고 주장한다.[86] "오직 와서 배워야만 거듭나

---

73)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155, 214f.

74)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90, 강조점은 필자가 덧붙인 것임.

75)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24.

76)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139, 141;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77("예수님께 택함 받은 신천지 목자"), 152("신천지의 양속의 목자").

77)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58, 71, 97, 155, 157, 159, 165, 174, 193, 194, 195, 196, 199, 204, 217, 242, 244, 263, 269, 271, 274, 275, 278, 284, 288, 300, 308, 337;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25, 32, 34, 39, 40, 45, 49, 56, 100, 114, 115, 116, 154, 177, 178, 188, 204, 225, 230, 240, 253, 254, 255f., 263, 266, 268, 282, 286, 297, 304.

그리고 이 하나의 이긴 자에게서 "배운 많은 이긴 자들"이(『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217, 278, 300, 310;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167, 286) 바로 신천지 교도들이라고 하는 것이다.

78)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100.

79)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100.

80)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32. Cf.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111.

81)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282, 강조점은 필자가 덧붙인 것임.

82)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141.

83)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과천: 도서출판 신천지, 2010), 9.

84)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165. Cf.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284, 337;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45, 76, 116, 253, 256.

85)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40.

게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며, 성령이 함께 하게 된다."고 한다.[87] 이런 뜻으로 그들은 "성도는 계시가 있는 곳으로 가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88] 그리하여 그들은 "이긴 자에게 가는 것이 구원이요, 하나님과 예수님께 가는 것이며, 천국에 가는 것이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89] 또 그들은 외친다: "모든 성도들은 오직 계시를 받은 목자에게 배워야 주의 뜻대로 하는 자가 되며, 주의 뜻을 알게 되고 열린 책과 성취된 것을 보고 들은 자에게 증거를 받음으로 보고 알게 되고 믿게 되며 구원을 받을 수 있다."[90] 또한 말하기를 "오늘날 누구든지 신천지를 통하지 않고는 정통도 구원도 천국도 없다. 신천지를 통해서만 천국과 영생이 있으며 하나님과 예수님께 올 수 있다."고 아주 명확한 이단적 주장을 한다.[91]

결국 신천지는 "초림 때와 같이 오늘날도 책을 받은 한 사람에게 심판도 생명의 말씀도 있음을 믿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다"고 말한다.[92] 그들이 참 목자라 하는 자가 심판을 할 수 있고, 그가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에게는 심판권과 치리권이 있다"고 한다.[93] 그들은 이렇게 주장한다: "약속한 추수 때가 되어 주님이 도둑 같이 천사와 함께 오시어 추수 밭(씨 뿌린 교회)에 가서 알곡을 추수하여 아버지 나라로 가져간다."[94] 지금이 추수 때이며, 자신들의 추수 꾼으로서의 활동이 주님이 하시는 이 일을 수행하는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들이 말하는 추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이 예수님 재림 때"라고 강조하고 있고,[95] 그 때는 "양식을 받아 때를 따라 먹이는 목자가 재림의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모든 유업을 받게 된다"고[96] 하고 있으니, 그들이 말하는 "재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그들은 상당히 명백히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이단이 아니면 무엇을 이단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데도 이러한 신천지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다. 그리고 바로 자신들이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도 이것이 이단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자기 속에 거짓 신이 들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97]

II. 신천지의 이단성

이로써 신천지가 이단이라는 것이 아주 분명히 드러났다. 이를 더 분명히 하기 위해 기독교의 기본적 교리들과 신천지의 가르침이 어떻게 다른 지를 살펴보는 작업을 해 보기로

86) 신천지 총회 교육부,『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72.
87) 신천지 총회 교육부,『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133.
88) 신천지 총회 교육부,『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142.
89) 신천지 총회 교육부,『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45.
90) 신천지 총회 교육부,『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72. Cf. 157.
91) 신천지 총회 교육부,『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204-5.
92) 신천지 총회 교육부,『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97.
93) 신천지 총회 교육부,『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116, 286. Cf. 신천지 총회 교육부,『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204.
94) 신천지 총회 교육부,『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261.
95) 신천지 총회 교육부,『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29, 37, 55, 57, 67, 77f.,114, 128, 151.
96) 신천지 총회 교육부,『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223.
97) 신천지 총회 교육부,『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58을 인유하여 하는 말이다.

하자.

1. 계시론의 문제: 자신들이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주장의 문제점

신천지는 얼듯 보면 성경을 존중하면서 성경을 해석하고 풀이하는 것만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들은 아주 교묘하게 자신들이 새로운 계시를 받아 전하고 있다고 주장하다. 그러므로 신천지가 이단이다. 구약이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되었음을 말한 후에 그들은 신약도 성취될 때가 있다고 하면서, 이미 그 때가 되었다고 한다: "오늘날은 예수께서 약속하신 신약을 이루는 때이다."[98]

그런데 "계시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봉한 말씀을 때가 되매 열어 **택한 자에게 보여주고 먹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정해준 곳에 가서 전하라고 지시하셨다."[99]고 하면서, "신약은 이룰 때에 보고 믿으라고 미리 말해준 것이다.... 신약을 이룰 때 보고도 믿지 못하는 자는 신앙인이 될 수 없다."[100]고 주장한다. 그리하여 "오늘날은 신약을 이룬 계시의 말씀이 새 포도주요(계 10장 참고), 이 새 포도주를 마음에 담아 가르치는 12지파 제사장들이 새 부대이다(계 7장 참고)."라고 한다.[101]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신천지가 시작된 1984년에 대해 말하면서 신천지는 "사도 요한과 바울같이 하늘로부터 지시 곧 계시를 받아 창조한 것이다."고 주장한다.[102] 이에 대해서 다음 같이 말하기도 한다: "초림 예수님에게 오신 것 같이 오늘날 약속한 계시가 이 밤에 참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이 계시는 .... 오늘날 이긴 자 약속의 목자에게, 약속의 목자에게서 약속한 종들 12지파 14만 4천명과 흰 옷을 입은 무리들에게 생명과 빛으로 전달된다."[103]

그들이 받고 전하는 계시의 성격을 마지막 계시로 규정하면서 그들은 "이 계시는 마지막 계시요, 이 계시를 믿지 않고는 구원이 없다. 이 계시가 오늘날 신천지예수교에 왔다."고 하며,[104] "우리가 전하는 이 계시는 예수께서 약속하신 지 약 2천 년 만에 처음으로 열어 전하는 것이다."고 말한다.[105] 즉, "예수님이 약속한 신약의 예언은 오늘날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에서 이루고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고 하며,[106] "오늘날 우리 신천지가 전하는 계시는 신약을 이룬 계시이다."라고 강변한다[107]

그런데 이 게시를 전하는 자가 우리가 위에서 고찰한 이긴 자라는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 약속한 신약의 묵시(계시)의 예언은 재림 때 약속한 이긴 자를 통해 이루신다(계 21:6)."[108] 그들이 이긴 자라고 하는 이만희 자신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확실하고

98)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16.
99)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222, 강조점은 덧붙인 것임.
100)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33.
101)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42.
102)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326.
103)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34.
104)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35.
105)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114.
106)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133.
107)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114.

분명한 계시를 받고 그 계시대로 이룬 실상 계시까지 듣고 보았으니, 나도 예수님같이 계시를 가르쳐 알게 한다."[109] 그래서 신천지는 그를 "계시의 말씀을 받은 약속의 목자"라고 매우 강조하는 것이다.[110]

신천지는 자신들의 독특한 계시의 특성은 실상 계시라고 한다. "오늘날 예언이 성취되어 비유한 실체가 나타났으므로 비유가 아닌 실상을 증거하는 것이다."[111] "성취 때가 되면 비사로 말하지 않고 실상으로 증거한다."[112] "이룰 때는 그 예언의 실체 곧 실상이 나타난다."[113] "우리 신천지는 계시의 말씀을 받고 그, 실상을 보고 증거하고 있다."[114] 그러므로 그들은 "우리 신천지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과, 신약이 이룬 실체들을 보고 듣고 증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115] 또한 "신천지가 오늘날 크게 부상하는 것도 하나님과 말씀과 실상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기도 한다.[116]

그리하여 지금은 "예언이 응한 실상 시대"라고 하고,[117] 지금은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면서 "계시록 20장을 을 제외한 신약의 예언은 약 90% 성취되었고, 계시록 7장의 인치는 일과 흰 옷 입은 무리에 대한 성취는 이루는 단계에 있다."고 말한다.[118] 그러므로 "신천지 예수교는 천상천하에 그 누구도 알지 못한 하늘의 계시를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지시하신 대로 모든 신앙인들에게 증거하기를 힘쓰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119] 자신들은 "하늘 계시로 성경을 통달하고 가르친다."고 하면서,[120] "이 때는 씨 뿌리는 복음도 목자도 신약의 예언도 끝이 나며, 만국이 와서 경배할 곳 증거 장막 성전이 열린다."[121] 그리고 자신들을 "하늘의 계시를 받은 신천지예수교"라고 언급한다.[122] 그리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성경과 진리의 성령이 주시는 계시 말씀을 믿는 것이다"고 말한다.[123] "신앙한 보람을 느끼는 신천지 12지파인들은 약속한 신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증거하고 있다... 신약의 성취를 믿지 못하면 영원한 구원이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124]

이와 같이 신천지는 자신들이 마치 성경을 풀어 가르친다는 인상을 주고 성경대로 하자고 하며 성경에 가감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자신들이 새로운 계시를 받아 그것을 가르친다는 것을 아주 분명히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천지는 성경에 새로운 계시를 더하는 이단인 것이다.

---

108)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71f.
109)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135.
110)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202.
111)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87.
112)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202.
113)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209.
114)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202.
115)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259.
116)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267.
117)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187.
118)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88.
119)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143.
120)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225.
121)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92.
122)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152, 186.
123)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246.
124)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33.

2. 창조론의 문제점

신천지는 기본적으로 창조론이 없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창조 이전에 이미 무엇이 있었음을 강조하고 있고, 창세기 내용을 자신들의 재 창조론의 비유가 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들은 창세기 1:1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때 천지가 없어 창조하심이 아니라, 이미 그 전에 천지가 있었다.”고 말한다.[125] 그러므로 그들이 창세기 1:1을 인용해도 그들은 진정한 창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더구나 그들은 “하나님은 영들과 함께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말하면서 성경에 없는 내용을 나름대로 부가하면서 이해하려고 한다.[126]

가장 심각한 문제는 창세기 1장을 보는 신천지의 입장이다. 그들은 “창세기 1장의 창조는 하나님의 선민 아담 세계가 멸망 받았으므로 재창조하시는 과정을, 자연계의 창조를 빙자하여 비유하신 말씀이다.”고 한다.[127] 그러므로 그들은 이 말씀에서 천지 창조의 사실을 찾지 않으려고 한다.

이런 입장에서 그들은 빛을 창조하신 것을 계속해서 “빛을 찾으신” 것이라고 표현하면서,[128] 이를 “빛이신 예수님을 찾으신 것이다”고 이상하게 해석한다.[129]

3. 타락 이해의 문제점

신천지는 인간의 타락을 설명하면서 “흙 곧 육에서 성령이 되었다가, 다시 성령을 벗고 육으로 돌아간 것이다.”고 하는데,[130] 이는 기독교와 도무지 조화될 수 없는 말이다. 이는 “생령”이라는 말을 강조하여 보면서[131] 이를 성령으로 이해하면서 나온 이상한 해석의 하나이다. 이는 “생령이 된 아담은 범죄로 인하여 육체가 되어 죽었다”고 말하는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132] 이런 뜻에서 그들은 “아담의 범죄 후 세상에는 죄 값으로 죄의 자손인 육체들만 있었다.”고[133] 자신들의 생각의 틀에 따라 비성경적인 주장을 한다. 또한 “자기 육체가 죽음으로 자기 육체에서 떠난 영은 사후 세계에 간 것이 아니며, 심판 때까지 중천에 머물게 된다.”고 비성경적이고 동양적 이해를 표현하는 말도 한다.[134] 또한 “죽은 육체에서 나온 영의 모습은 살아 있을 때의 자기 육체의 모습 그대로이며, 살아서 보는 세상 그대로 보게 되고 느끼게 된다.”는 말도[135] 성경의 사상이 아닌 동양적이고 한국적 생각을

125)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71.
126)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243.
127)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72.
128)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71, 72.
129)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72.
130)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86.
131)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160, 307.
132)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118.
133)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119.
134)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256.
135)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256f.

그대로 반영하면서 말하는 것이다.

신천지는 사람을 신이라고 하셨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드신 사람도 하나님과 같은 형상의 신이다.”고 주장한다.[136] 처음 창조된 것이 신인(神人)이 된 것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한 것을 “신인(神人)에서 육으로 돌아 간 자들의 마음의 계획이 항상 악하였으므로”라고 표현하기도 한다.[137] 처음 창조된 사람을 신인(神人)이라고 자기들 식으로 이해하면서, 타락한 것은 영이 떠나고 육신만 있게 된 것이라고 한다. 이와 연관해서 그들은 “성령(생령)을 벗고 육을 입은 것이기에, 성령을 받으라(입으라)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는 것이다.[138]

4. 신천지의 비성경적이고 비기독교적인 구원 이해

타락된 사람을 영을 상실하고 육이 된 것으로 보기에 신천지는 구원에 대한 이해도 이상하게 제시한다. 그들은 근본적으로 구원을 “성령과 우리 육체가 하나가 되는 것”으로 이해한다.[139]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사람(육)마다 영이 있고 하늘에도 영이 있다. 천지(영과 육)가 하나 될 때, 하늘의 영이 땅(육)의 영을 택하여 하나가 된다(결혼, 살전 4:13-17, 고전 15:35-54, 계 20:4-6). 악령은 악한 사람, 성령은 선한 사람을 택하여 하나가 될 때 그 육체는 결혼한 영의 집이 된다(고전 3:9, 16, 계 18, 19장 참고).”[140] 모세에게도 “천신(天神) 곧 하나님이 오시어 함께” 하셨다는 것이다.[141] 근본적으로 “성신이 그 속에 없는 사람은 종교인이 아니며 그저 육신만 있는 존재일 뿐이다.”고 한다.[142] 따라서 “거듭나지 못한 자는 신앙을 한다 할지라도 세상 곧 땅에서 난 육체일 뿐이다.”는 것이다.[143] 성경이 말하는 “육체”라는 말을 몸으로만 해석하여 이와 같이 기괴한 이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들은 “육체(흙)인 사람에게 아담 같이 신의 씨 곧 하나님의 씨인 말씀이 들어감으로 사람이 신의 소생이 된다.”고 말한다.[144] 이는 인간 일반과 그리스도인을 혼동하는 생각과 표현이다. 그런데도 이를 확정하여 “말씀을 받은 것은 신의 씨를 받은 것이며, 사람이 말씀을 받은 것은 말씀의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것이며, 생기 곧 생명과 빛을 받은 것이 된다. 생기는 곧 말씀이 육체에 들어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됨으로 같은 신의 형상이 된다.”고 주장한다.[145] 그리하여 그들은 그들이 말하는 세상 범인(凡人)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요 신의 소생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기독교와는 상당히 다른 이상한 이론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

136)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17.
137)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39.
138)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86.
139)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24.
140)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256.
141)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226.
142)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156.
143)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180.
144)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160.
145)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161.

그리고 이로부터 “하나님의 성경 6천년의 회복의 역사는, 신의 소생들이 육체가 되었으므로 다시 신의 소생으로 돌려놓는 것이다”고[146] 하는 이상한 이론을 발전시켜 가고 있다. 즉, 신천지는 “창조주 하나님(말씀)이 육체 안에 들어가 재창조됨으로 거듭난 신의 소생이 되는 것이다.”고 한다.[147]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들의 이긴 자가 대언하는 “이 생명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생명의 부활이 되어(그 영이 다시 살아나) 사망에서 생명으로 곧 바벨론에서 예수님께로 나오게 된다”고 말한다.[148] 다시 말하여, “생명의 씨의 말씀이 마음 밭에 심어져 생명나무가 되고 그 곳에 성령이 임하여 하나가 됨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영생할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한다.[149] 때로는 “이 나무에 씨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하나가 되매 나무가 곧 천국이다.”라고도 말한다.[150]

후에 언급할 신천지적 종말에서 이런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천지의 구원관은 신천지의 종말관과 같이 가는 것이다.

5. 예수님과 성령님과 삼위일체에 대한 신천지의 잘못된 이해

신천지는 근본적으로 예수님과 성령님과 삼위일체에 대해서 매우 비성경적인 그래서 비기독교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다. 아나도 그들의 인간관과 구원관이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5-1. 예수님에 대한 신천지의 잘못된 이해

구원에 대한 신천지의 잘못된 이해는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이끌었다고 할 수 있다.[151] 그들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은 육체였고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셨다.”는 것을 강조하여 말한다.[152] 그들은 “하나님께서 ... 예수님께 임하심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라고 하셨다”고 하며,[153]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셨고,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셨다.”고 한다.[154]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능력이 있게 된 것”이라는 것이다.[155]

그런데 신천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임하신 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이었다.”고 한다.[156] 그러므로 신천지는 본래 예수님은 그저 죄 없는 사람이었다고 이해하는

146)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161.
147)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161.
148)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225.
149)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21.
150)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57.
151) 신천지가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여 이상한 구원론이 나왔는지, 아니면 잘못된 구원 이해를 가지고 예수님을 그들 식으로 이해해서 잘못되었는지는 모호하다. 여기서는 그들의 잘못된 구원론이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이끌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논의해 본다.
152)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212.
153)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23.
154)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213. Cf. 226.
155)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25.
156)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23f. Cf.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은 죄 없는 예수님에게 오셨고”라는 말을 자주 한다.[157] 예수님을 기본적으로 육체로 본다는 것과 그저 죄 없는 사람으로 여기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며 상당히 이단적인 발상인데 신천지는 이렇게 제시한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여겨진다. 이 육체인 예수님께 성령님이 임하여 왔다는 것이다.

5-2. 성령님에 대한 신천지의 비성경적이고 기괴한 이해

그런데 신천지는 성령님도 이상하게 이해하고 제시한다. 그들의 성령 이해는 전혀 비기독교적이라고 할 만한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영 이해는 상당히 혼돈스럽다. 때로는 하나님을 영(성령)이라고 하기도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한 것을 영(성령)이 임했다고 표현한다. 그러나 신천지는 “성령은 하나님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거룩한 영들을 통칭하는 말이다.”고 하면서, [158]상당히 많은 곳에서 영을 천사와 연관시켜 이해한다. 그들은 천사를 언급하면서 “하나님 소속을 성신 또는 성령이라 칭하고 마귀 소속을 악신 악령이라 칭한다.”고 말한다.[159] 이런 이해를 연장하여 “천천만만의 천사 중 보혜사 성령이 있다.”는 말도 한다.[160] 또 때로는 더 혼돈스러운 표현도 하니, 예를 들어, “천사든 사람이든 거룩한 성령을 받아 창조되면 거룩한 영, 거룩한 천사라 할 수 있고 성신, 성령이라 할 수 있다. 이러므로 그 소속이 하나님께 속한 영이면 성신, 성령이라 칭한다.”고도 말한다.[161] 이 표현에 의하면 사람도 성령을 받아 창조되면 성령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 되니 신천지의 성령 이해는 매우 혼동되어 있고, 근본적으로 비기독교적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혼동된 이해를 가지고 있지만 어찌하든지 그 성령께서 육체인 예수께 임하여 왔다는 것이 신천지의 주장이다. “예수님의 육체에 성령이 임했고(마 3:16)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심으로(요 14:10)”[162] 바로 이런 의미에서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된 분”이라고 한다.[163] 그러므로 신천지에 의하면,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 아니었고 단순히 육체였는데 그에게 하나님이 임하여 온 분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식의 표현을 즐겨 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식으로 표현하기를 꺼려하는 것이다. 이는 그들의 독특한 예수 이해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5-3. 삼위일체에 대한 신천지의 비성경적이고 비기독교적 이해

따라서 신천지는 삼위일체에 대해서도 매우 이상한 이해를 제시한다. 우리가 살펴 본 바와 같이 신천지는 “예수님의 육체에 성령이 임했다(마 3:16)”고 하면서, 그 결과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심으로(요 14:10)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가 한 몸에 있으므로 일체라 한다.”[164]이와 같이 신천지는 “성부와 성령이 예수님(성자)의 한 육체 안에 있을 때는 삼위

별 요약 해설 II』, 54, 79.

157)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169. Cf.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274;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19, 23.

158)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212.

159)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48.

160)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212.

161)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49.

162)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46.

163)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27, 28.

일체라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165] 그러므로 신천지에 의하면 육체인 예수 안에 성부와 성령이 있을 때만 삼위일체라고 한다. 그들이 "일체"라는 말을 한 몸이라는 한자어의 뜻을 중심으로 사유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예수의 몸에 성부와 성령이 같이 있을 때만 삼위일체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결국 그들은 "초림 때와 같이 성부와 성령이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는 삼위일체라고 할 수 있으나, 예수님 승천 후에는 각각 개체임을 알 것이다."고 주장한다.[166] 또한 "재림 역사인 계시록 성취 때에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님의 성령은 다 성령이로되 그 영체가 삼위일체라고 할 수 없다."고까지 주장한다.[167] 또한 그들은 "예수께서 육체를 벗고 개체로 계실 때는 각각 삼위로 계셨다."고 하며,[168] 삼위의 구별(differentiation)을 시사하는 여러 성경 구절들을 언급한 후에 그들은 "영으로 계실 때는 각각(개체)임을 알 수 있다."고[169] 주장한다.

그러므로 신천지는 삼위일체라는 말의 신학적 의미를 모르거나 자신들의 독특한 의미를 삼위일체라는 말에 불어 넣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성부, 성자, 성령이 각기 구별되면서 그 본질이 하나이시라는 삼위일체라는 말을 버려 버리고, 그런 것은 삼위나 삼위일체는 아니라고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천지는 성경적 삼위일체를 믿지 않고, 자기들의 해석을 제시하는 것이다. 결국 신천지가 섬기는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닌 것이다.

왜 신천지는 이렇게 이상한 이해를 제시하는 것일까? 근본적으로 성경의 삼위일체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만, 더 나아가서 그들의 독특한 이긴 자 개념을 위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5-4. 영의 함께하심에 대한 신천지의 비성경적인 이해

신천지는 "예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으며, 진리의 성령 보혜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와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속에 거하신다."는 것을 주장한다.[170]

여기서 더 나아가 신천지는 "예수께서 이 땅에서 역사 하실 때에는 하나님과 성령이 예수 안에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성경에 이름과 같이 우리가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요 7:38-39) 삼위가 한 몸을 이루게 된다."고 말한다.[171] 이 표현에 의하면, 그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바로 삼위일체라는 것이 된다.

6. 구속에 대한 신천지의 잘못된 이해

신천지의 여러 글들은 "예수님의 피로 사람의 죄를 씻어주고" 등의 말을 여러 번하여[172] 예수님의 피를 강조하는 것 같으면서도, "마태복음 26장 27절-29절에서 언약하신 예

164) 신천지 총회 교육부,『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46.
165) 신천지 총회 교육부,『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164.
166) 신천지 총회 교육부,『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165.
167) 신천지 총회 교육부,『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165.
168) 신천지 총회 교육부,『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46.
169) 신천지 총회 교육부,『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165.
170) 신천지 총회 교육부,『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130.
171) 신천지 총회 교육부,『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47.

수님의 피는 약속대로 아버지 나라에서 먹게 된다"고 하면서,[173]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의 말씀이다"고 하고 "의인인 예수님의 피(계시 말씀)로 죄를 씻은 사람은 유리 바다 앞 심판 때에 그 죄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들이 예수님의 피로 구원 받은 의인들이다."라고[174] 말하는 것을 보아서 신천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을 전통적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신천지의 이해에 근거하여 볼 때에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지키는 자이다"라고[175] 말하는 이유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두루마기를 빨아 입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까맣게 된 성도에게 흰 사람인 구원자가 하나님의 수정 같은 교훈의 물을 뿌려, 까만 옷을 빨아 씻어 희게 된 자들이 흰 무리요, 이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자가 되고 예복을 입은 자가 된다."고 말하는[176] 이유를 알게 되는 것이다. 즉, 그들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구속을 믿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가르치는 계시 말씀이라는 교훈으로 씻음을 통해 깨끗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다.

신천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목적을 말하면서 하나는 사람의 죄를 사하는 것이요. "또 하나는 죄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이 오시어 하나 되는 것이었다"고 주장한다.[177] 또한 오순절 성령 강림을 이야기 한 후에 "이는 .. 죄를 사하심으로, 죄로 인해 떠나가신 성령이 죄 없는 사람에게 다시 임하신 것이다."고도 말한다.[178]

아담과 하와가 벗었다는 것도 "옷을 벗음이요, 옷은 하나님(성령)의 말씀과 그 말씀 안에서의 행실을 의미한다."고[179] 이상하게 해석하면서 행위 구원론적인 시사를 하고 있다. 그들은 "누구든지 선행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지켜 믿고 순종하는 자는 교단과 상관없이 기독교인이 된다."고 말하기도 하고,[180] "자기 행위에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 받는다(계 20:12)."는 말을 여러 번 말하고 있다.[181]

신천지의 구속에 대한 언급들은 매우 애매모호하지만 여기에는 다소 의도적인 면도 있는 것 같다.

7. 종말과 천년 왕국과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신천지의 비성경적 이해

신천지는 종말과 재림과 천년 왕국과 신천지를 강조한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 대한 이해가 성경과 기독교의 이해와는 판이하게 다르다.

---

172)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79, 117, 119, 213, 220, 221. 특히 신천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들의 구원론이 "의인 구원"이라고 비판한 것을 의식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이 의(義)의 피를 흘리심으로 죄 사함을 받게 된 것이다"는 것을 강조한다(213). 그러나 그들의 논의의 흐름을 주의해 보아야 할 것이다.

173)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79.

174)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80.

175)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79.

176)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80.

177)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26.

178)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26.

179)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86.

180)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36.

181)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34, 35, 37, 50, 53, 54, 55, 61, 71, 76, 93, 97, 105.

7-1. 종말에 대한 신천지의 비성경적 이해

신천지는 종말을 강조한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종말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종말과는 다른 의미를 지닌 말이다. 그들은 "성경의 종말(말세)이라는 말은 세상 사람이나 지구와 우주를 가리켜 한 말씀이 아니고, 신앙인에 대해 한 말씀이다."고 말한다.[182]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종교가 종말을 고하게 되는 것이 종말이라는 것이다. "성경이 말한 말세는 종교인들의 종말이다. 세계적 종말은 예수님 재림 후 천년 뒤에 있게 된다."고 한다.[183] 그래서 그들은 종말을 "종교의 종말"이라고 표현한다.[184] 그런데 그 중에서 기독교회가 종말을 맞는 것이 그들이 종말을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다. 그래서 그들은 종말은 "기독교의 종말"이라고 하고,[185] "교회의 종말 때"라고 한다.[186] 이런 이해에 근거해서 계시록 18:3이 말하는 만국의 무너짐은 모든 교회의 무너짐을 말한 것이라고 해석하면서[187] "이는 기독교 세계의 종말을 알린 것이다."고 말한다.[188]

그런데 신천지는 그런 종말이 자신들이 시작 될 때인 1984년에 이미 임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날 종교 말년(종말)인 주 재림 때"라고 표현하기도 하고,[189] "종교 세계의 말세요 계시록 성취의 시대인 오늘날"이라고 말하기도 하며,[190] 지금이 "기독교 말세임을 알아야 하고,"[191] 지금이 "기독교 말년 곧 주 재림 때"라고 한다.[192] "지금 이 세상은 약속한 추수 때(말세)가 되어" 있다고 하고,[193] "이 추수 때는 씨 뿌린 교회 시대가 끝나는 때요... 주의 재림 때이다."라고 말한다.[194] 지금이 "예수님 재림 때인 계시록 성취 때"라고 하고,[195] "계시록의 때요 재림 때인 오늘날"이라고도 표현하며,[196] "지금은 추수 때인 세상 끝이다."고 한다.[197]

그런데 "추수 때는 곧 교회의 끝이다."이라고 하면서[198] "기독교 말세인 지금"[199] "예수님의 선천 세계는 끝이 나고, 후천의 새 하늘과 새 땅(신천지)의 세계가 도래하게 된다..... 한 시대가 범죄로 멸망 받아 끝난 후 약속의 목자가 와서 후천 세계를 창조하게 된다."고 한다.[200] 여기 신천지가 한국 이단의 계보를 따라 말하는 비성경적이고 비기독교적

---

182)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26.
183)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73.
184)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27, 29.
185)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222.
186)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78, 251.
187)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226f.
188)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227.
189)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29, 308.
190)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43. Cf.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58.
191)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70.
192)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217.
193)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34.
194)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55, 219.
195)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57.
196)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114.
197)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151.
198)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218.
199)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242.

인 후천 개벽 사상이 등장한다. 이런 잘못된 이해를 매우 강조하면서 그들은 "재림을 맞이한 오늘 날, 성도는 없어지는 선천인(先天人)이 되지 말고 다시 창조되는 새 천지의 천민(天民)이 되어야 한다. 우리 신천지는 새로 창조된 새 하나님 나라의 12지파이다."고 주장하며,[201] "이 신천지는 계시록 14장 1-5절의 성읍(시온산)이다."고 하면서,[202] "오늘날 계시록 19장에서 어린양의 혼인 잔치에 손님들이 시온산으로 모이고 있다."고 주장한다.[203] 그리고 "주 재림 때에는 주후 기원 곧 서기가 중단되고 신천기(新天紀)가 시작된다."고 한다.[204]

이와 같이 신천지는 아주 명확하지는 않지만 이미 주의 재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주님의 재림이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것일까?

7-2. 재림에 대한 신천지의 비성경적인 이해

그들은 기본적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영(성령)으로 오시며**"라고 주장한다.[205] 신천지는 영적 재림론을 주장하는 것이다. 즉, 그들은 재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리적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결국 신천지는 "**예수님과 그 12제자들의 영들과 신천지의 이긴 자와 그 12제자(12지파장)들이 하나가 되면**(마 19:28 참고), 이것이 생명나무에 새가 와서 깃들이는 것이 되며, 이 생명나무는 달마다 열두 가지 새 실과를 맺게 된다."고 하면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생명나무를 찾는 사람은 신천지에 와야만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206] 그러므로 신천지에 의하면 재림 예수님은 **영으로 오셔서 그들의 이긴 자와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이다. 여기서 신천지 이단의 본질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들은 "구름타고 오시는 예수님은 영으로 오심을 뜻한다."고 말한다.[207] 이로부터 그들은 "구름타고 오시는 주를 보는 것은, 주의 이름으로 오신 보혜사 성령과 하나가 된 사람을 보는 것이다."라는 기괴한 주장을 이끌어 내고 있다.[208] 그들은 "주님은 영으로 오시고, 주님을 맞이할 성도는 육이므로 주님을 육안으로 보지도 못하며, 또 성도들이 공중에 올라가지도 못한다"고 하면서,[209] "세상 땅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는 것이[즉, 그들이 말하는 이긴 자가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곧 하늘에 들어가는 것이 된다"고 매우 기괴한 주장을 한다.[210] 그러므로 그들은 "택함 받은 영적 새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네 생물과 24장로와 함께 있는 곳" 즉 자신들이 거처를 "공중(하늘)"이라고 주장한다.[211]

그들은 "새 언약의 피는 언제 어디서 먹게 되는가?"라고 질문한 후에 "이 새 언약의 피

---

200)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29.
201)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67.
202)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117.
203)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44.
204)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279.
205)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99, 148, 강조점은 덧붙인 것임.
206)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99, 강조점은 덧붙인 것임.
207)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283. Cf.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284.
208)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284.
209)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294.
210)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295.
211)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296.

를 먹는 때는 계시록 때이다"라고 하고, "재림 때인 계시록 때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천국이** 계시록 2장, 3장같이 **이긴 자에게 임하게 되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긴 자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임하게 되며, 이곳에서 새 언약의 피를 먹게 되며, 또 이긴 자를 통하여 신약을 다 이루게 된다."고 주장한다.[212] 또한 "계시록 때 창조되는 하나님의 나라도,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12지파로 이루어진다. 계시된 새 언약의 말씀(신약 성경)으로 새겨 성경 말씀이 된 자가 새 시대의 새 제사장 곧 새 목자가 된다."[213] 그러므로 그들의 이긴 자가 새 목자이므로 그를 믿고 따라야 하는데, 그가 성경말씀이 된 자라는 매우 신성모독적인 표현을 하고, 이런 신성모독적인 사상을 신천지는 가진 것이다.

따라서 신천지에서는 요한계시록 10장에 나타나는 일곱 번째 나팔이 불게 되는 때를 자신들이 나타난 때라고 하면서 "이 마지막 나팔이 영생이 시작되는 비밀의 나팔"이라고 한다.[214] 따라서 바로 "이 때 하나님의 씨와 성령으로 다시 남으로 영생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창조된다."고 한다. "우리(산 육체들)도 변화되어 썩지 않고 죽지 않는 몸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곧 신의 몸으로 영생하게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215] 그리고 "이것이 신(하나님)의 아들 곧 신의 소생으로 다시 사는 것이다."고 말한다.[216] 이를 그들은 다음과 같이 표현하기도 한다: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 그와 같이 창조되었을 때, 하늘에서 이룬 영계의 나라와 성령들이 이 땅에 이룬 곳에 임하여 하나가 된다(계 21:1-7). 신천지 예수교에서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를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창조하고 있다."[217]

신천지는 이를 신인합일체가 되는 영육 결혼이라고도 표현한다. "영계와 육계가 하나가 되는 결혼"을 매우 중요시 하면서 말한다.[218] 예를 들자면, "재림 때에는 하늘(영계)와 땅(육계)이 하나가 됨으로 영계 하늘 보좌의 실체들과 우리가 하나 되어 살게 되므로, 그 모형이나 그림자가 필요 없게 된다."[219] 이제는 "하늘의 영과 땅의 육이 결혼하여 하나가 되어 신인합일체들이 바로 모세와 솔로몬이 이 땅의 만든 모형의 실체이다."[220] 그리하여 자신들이 "천지 합일체(신인 합일체)로 다시 난 천민(天民)"이라고 한다.[221] 또 다른 곳에서는 "하늘에서 이룬 영계의 나라와 성령들이 오늘 날 이 땅에 창조된 자들에게 와서 하나가 되는 것이 곧 신인합일체가 된 영육 결혼이며, 천지 창조이다(계 21장)."라고 말한다.[222] 그들은 "이 땅의 신천지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영계)의 영들이 장가들어(호 2:19 참고) 하나가 된다."고 한다.[223] "다시 오신 예수님과 순교한 영들이 마태복음 25장에서 말한 등과 기름이 준비된 자들과 함께 신인합일체가 되는 혼인잔치가 있게 되고 천국을

212)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263, 강조점은 덧붙인 것임.
213)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291.
214)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21.
215)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21.
216)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22.
217)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114.
218)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117.
219)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272.
220)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273.
221)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273, 309.
222)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116.
223)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99.

상속받게 된다."는 것이다.[224] 이는 그들의 구원관이 반영된 표현으로 신천지를 통해서 육인 사람에게 영이 주어져 구원받게 되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신천지로 오는 것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이요, 영적인 부활"이라는 이상한 주장을 하는 것이다.[225]

이와 연관해서 신천지는 "재림 계시록 때 창조 되는 12지파가 있다."고 하면서,[226] "신천지는 하나님 나라 12지파를 세웠다."는 것을 강조한다.[227] 이것을 세운 사람이 그들이 말하는 "이긴 자"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예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고, 예수님이 영적 이스라엘을 세운 것처럼 "오늘날 이긴 자도 예언과 선지자를 끝내고 영적 새 이스라엘 12지파를 창조하셨다."고 존대어를 써서 표현한다.[228] 그리하여 "신천지인들은 계시록 5장과 7 장과 14장의 추수된 처음 익은 열매들이다."라고 하고,[229] "우리 (12지파)"라는 표현도 쓴다.[230]

그러면서 "신약에 약속한 12지파의 인 맞은 성도만 참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과 백성이 된다."고 배타적인 주장을 한다.[231] 또 "14만 4천이라는 수는 문자 그대로의 숫자이며, 이들은 씨 뿌린 추수 밭에서 계시의 말씀을 믿는 알곡을 추수하여 인 맞은 자들이다"라고 말한다.[232]즉, "추수된 12지파 14만 4천명이 처음 익은 열매이며(계 7:1-8, 계 14장),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요 제사장들(계 1, 20장)."이라는 것이다.[233] 이들 "처음 익은 열매 14만 4천명은 진리의 말씀으로 낳음을 받은 자(약 1:18, 계 14:1-5)"라고 하면서,[234] "추수되어 창조된 12지파 소속"이 되는 것이 중요하고,[235] "신약이 약속한 12지파의 가족이 된 것"을 강조한다.[236] 결과적으로 "신천지는 세계 민족 중에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며 거룩한 천민(天民)이다."고 말하는 것이다.[237]

그러므로 신천지는 "약속한 천민(天民) 12지파가 있는 곳이다."는 것이다.[238] 그러면서 "이 12지파에 속하지 않아도 구원 받을 수 있는가?"라고 질문하면서 부정적인 대답을 유도한다.[239]

그리하여 신천지는 마태복음 6:33 말씀도 그들은 "영계의 천국이 임하여 이 땅의 천국과 하나가 된 이곳의 나라와 이곳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말씀이다."라고[240] 아주 이상한

---

224)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223.
225)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278.
226)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53.
227)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98.
228)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166. Cf. 204, 259.
229)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100.
230)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55.
231)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60.
232)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291. Cf.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306.
233)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63. Cf. 105, 132, 199f., 254
234)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65.
235)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65, 71;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100.
236)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101.
237)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257.
238)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271.
239)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75, 79, 81, 82f., 118,

해석을 한다. 그들이 말하는 이곳이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진 새 하늘과 새 땅(신천지)으로(계 21장), 인 맞은 12지파가 있는 곳이다.”라고 하여[241] 자신들을 먼저 구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신천지가 말하는 영육결혼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아주 이상한 이해의 하나가 이를 표현하는 중에 나타나는데, 그들은 “죄가 가중됨으로 나타난 것이 수명 감축이다.”는 것을 강조하면서.[242] “사람의 수명을 단축하는 죄가 해결되면 생명이신 하나님이 사람에게 다시 오시어 함께 하시므로 그 때부터 수명은 길어 질 것이다(계 21:1-4, 롬 8:9-11 참조).”고 주장한다.[243] 그래서 그들은 “주 안에서 육이 죽은 자는 그 영만 살게 되고 주님 오실 때에 우리 살아남은 자는 아담 범죄 이전 사람 같이 예수님과 함께 장수하게 된다.”고 한다.[244] “하나님이 죄 없는 예수 안에 거하심 같이, 계시록 때(계 5:9-10, 계 7장)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시게 된다.”[245] 그러므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후에 우리 안에 거하시므로 우리에게 생명이 있게 되어 장수하는 것이다.”[246]

7-3. 천년 왕국에 대한 신천지의 비성경적인 이해

신천지는 때로는 앞으로 천년 왕국이 올 것이라는 말도 한다. 그러나 주로는 이미 천년 왕국이 왔다는 매우 강한 시사를 주고 있다.

기본적으로 신천지는 천년 왕국은 “용에게 목 베인 **영혼들과 우리 살아남은 자가 하나 되어** 천 년간 주와 함께 사는 왕국이다.”라는[247] 자신들의 신인합일 개념에 따른 아주 기괴하고 자의적인 해석을 하고 있다. 후에 이를 더 자세히 말하는 데 “**하늘의 순교의 영들은** 잃어버린 몸 대신에 **우리 몸에 장가들어 하나 되어** 주님을 모시고 영원히 함께 사는 시대가 천년시대이다. 이것이 부활이요, 다시 사는 것이며, 거듭난 것이다.”라고 말한다.[248] “이 천년 왕국이 영계와 육계가 함께 사는 낙원 곧 천국이 된다. 이는 예언된 신약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한다.[249] 이런 부분만 보면 신천지가 이런 천년 왕국이 앞으로 올 것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하늘 복음 시대가 끝나고 주 재림 천년 시대가 도래하였다.”고 외치기도 한다.[250] 또한 “이 첫 열매들은 하늘의 영들과 하나가 되어 신인 합일체가 된다. 이 신인 합일체가 된 자들이 첫째 부활자들이요, 이들이 있는 곳이 천년성이다.”라고 말한다.[251] 첫째 부활에는 순교자들의 영들과 “시온산 12지파 인 맞

240) 신천지 총회 교육부,『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153.
241) 신천지 총회 교육부,『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153.
242) 신천지 총회 교육부,『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170, 30f., 273; 신천지 총회 교육부,『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18.
243) 신천지 총회 교육부,『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30f., 170
244) 신천지 총회 교육부,『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32.
245) 신천지 총회 교육부,『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101.
246) 신천지 총회 교육부,『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274.
247) 신천지 총회 교육부,『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305, 강조점은 덧붙인 것임.
248) 신천지 총회 교육부,『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305, 강조점은 덧붙인 것임. Cf. 신천지 총회 교육부,『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306.
249) 신천지 총회 교육부,『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253.
250) 신천지 총회 교육부,『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278.
251) 신천지 총회 교육부,『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279.

은 자들만이" 참여한다 말한다.[252]

그러므로 "천년 기간 중에는 하나님의 씨로 난 신의 소생인 천년성 천민(天民)과 성 밖의 '세상 범인'의 두 존재가 지구촌에 있게 된다. 천년 후에 성 밖 범인들은 끝이 난다."고 한다.[253] 그러나 여기서 이상한 알레고리도 시도하면서 더 기괴하게 만드니, 그들은 "천년 후 심판 때는 두루마리를 빨아 입은 성 밖의 세탁소(장막) 사람들이 심판을 피하여 성안으로 들러오게 된다."[254] 이것이 무슨 뜻인지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결국 신천지로 와야 구원을 받는다는 뜻을 전하려고 하는 말 같다. 그러므로 "천년 기간 중 회개하고 옷을 빨아 입고 생명책에 녹명되면 거룩한 성도 들어 올 수 있다"고 말하는[255] 부분과 같은 뜻을 전하려는 것으로 이해 된다. 그러므로 그들은 아마도 신천지가 천년 왕국이라고 말하려고 하는 듯하다.

7-4. 최후의 심판과 영원 상태에 대한 신천지의 비성경적 이해

천년 왕국이 차면 사탄이 잠시 풀려나게 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성경에 없는 것을 덧붙이면서 그들은 "이 때 신인합일체(신의 소생)가 된 성안의 사람들에게는 불 심판이 없다"고 선언한다.[256] 다시 말하여, "첫째부활자인 천년 성안의 사람들(신인 합일체)은 심판 받는 일이 없이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된다."고 주장한다.[257] 이런 뜻으로 그들은 다음 같이 주장하는 것이다: "우리는[신천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천년성의 천민 곧 12지파 제사장들과 흰 무리들로서 영원히 하나님과 예수님과 천사들과 함께 낙원에서 살게 된다."[258] "오직 신인 합일체가 된 시온산 12지파의 인 맞은 첫째 부활자만이 영원히 존재할 뿐이다."[259] 이런 뜻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룬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순교자들과 우리 살아남은 자들의 승리의 나라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다.[260]

"천년 세계[천년 왕국]가 마친 후, 육이 죽은 영들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 거룩한 영에게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때 영들은 생시의 자기 행위에 따라 책 곧 성경말씀에 의해 심판을 받게 되고, 의를 행한 자는 낙원의 세계 천국으로, 불의를 행한 자는 지옥 유황 불 못에서 세세토록 고난의 벌을 받게 된다."고 주장한다.[261] 이는 전천년설을 따라서 말하는 것아 보이지만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따른 해석에도 못 미치는 매우 비기독교적인 해석이다. 특히 거룩한 영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이상한 생각이 부가되었고, 낙원의 세계 천국이라는 이상한 것이 가미되었으며, 결국 구원 받는 것이 행위에 의한 것으로 제시된 매우 비기독교적인 해석인 것이다. 더구나 자신들은 최후의 불 심판을 받지

---

252)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279.
253)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277, 309.
254)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279.
255)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309.
256)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279.
257)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280.
258)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277.
259)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280.
260)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306.
261)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257;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278.

않는다는 비성경적인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마지막에 대한 이론은 매우 비성경적이고 비기독교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또한 그들이 독특하게 구별하여 놓은 신인합일체들과 심판 후에 낙원의 세계 천국에 있게 되는 영들은 어떤 관계에 있는 지를 설명하고 있지 않다.

때로는 "인 맞은 12지파 14만 4천명은 도통군자로서 치리자(제사장)이 되고,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흰 무리가 된 자들은 천민(天民)이 된다"고 구별하여 제시하기도 한다.[262] 이것도 성경적 근거를 가지지 못하는 자의적인 구별이라고 여겨진다.

7-5.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신천지의 비성경적인 이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도 신천지는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들 식으로 이해한다. 그들은 "새 하늘은 새 장막이며, 새 땅은 거듭난 새 천민(天民)이다."라고 말한다.[263] 물리적인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장하는 새 장막과 그 안에 잇는 백성이 있게 되는 것이 그들이 이해하는 "새 하늘과 쌔 땅" 개념이다. 그리하여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증거 장막과 이간 자들이 새 하늘과 새 땅인 것이다."는[264] 이상한 결론에로 이끌어 가고 있다.

그리하여 자신들, 즉 신천지가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면서 "말세의 성도가 찾아야 할 곳은 오직 12지파와 하늘의 책을 받은 약 속의 한 목자와, 만민이 가서 경배할 곳 곧 이긴 자들이 모임 증거 장막 성전뿐이다."라고 말하는 것이다.[265] 왜냐하면 이곳은 "오늘날 신약을 이루고 증거하는 곳"이기 때문이며,[266] "신약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실상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267] 즉, "온 지구촌에서 신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오직 신천지예수교 증거 장막성전뿐이다."는 것이다.[268] 그리고 이곳을 "영계의 천국이 임한 이 땅의 천국인 신천지"라고 말한다.[269] 그러므로 신천지는 매우 비성경적이며 비기독교적인 천국관과 종말관을 가졌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8. 사도신경을 거부하는 신천지

신천지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구절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예수님이 실제로는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확인 했고, 대사장들과 장로들에게서 고난을 받으신 것이 아니므로 사도신경이 잘못된 것이며 이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270] 또한 예수님을 정죄한 곳이 공회이고 사도들을 능욕한 곳도 공회요, 바울이 끌려 간 곳도

262) 신천지 총회 교육부,『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282.
263) 신천지 총회 교육부,『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309.
264) 신천지 총회 교육부,『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310.
265) 신천지 총회 교육부,『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75.
266) 신천지 총회 교육부,『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81.
267) 신천지 총회 교육부,『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125.
268) 신천지 총회 교육부,『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264; 신천지 총회 교육부,『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163.
269) 신천지 총회 교육부,『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77.
270) 신천지 총회 교육부,『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149f., 151, 161.

공회이므로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고 고백은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271] 그러므로 그들에 의하면 “사도신경도 성경에 없는 것이며 잘못된 내용이므로 당연히 금해야 할 것이다.”라고 한다.[272] 그리하여 그들은 “사도신경대로 믿고 시인해 온 자들은 미혹 받아 시인한 것이 분명하며, 그 행위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당시 유대인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같은 죄를 짓는 것이다.”[273] “주기도문의 ”대개“와 사도신경은 미혹의 말이요 성경에 없는 것을 더 한 것이므로 기독교인들은 이것들을 시인하고 암송해서는 안 된다.”[274]

이렇게 사도신경을 거부하는 신천지는 사도신경의 내용을 나름대로 곡해하면서 이 땅의 보편 교회와 같은 신앙 고백하기를 거부한 것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그들은 사도신경의 한 부분에서 우리가 같이 고백하는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거룩한 공회)의 일부가 아닌 것을 자증하며, 성도의 교통에 참여 하지 않는 것이다.

9. 타종교에 대해 관대하려고 하는 신천지?

교회에 대해서 강한 비판을 가하는 신천지가 흥미롭게도 타 종교에 대해서는 관대한 표현을 하기도 한다. 이는 전략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그들은 “기독교, 불교, 유교 등은 하늘 가는 길을 가르치는 점에서는 같은 종교이다. 이 길은 오직 그곳에 갔다 온 자만이 안다.”고 말하기도 한다.[275] 또한 “정도령은 진리의 성령 곧 정도(正道)의 영을 말한 것이다.”고 말하기도 하고,[276] “석가도 공자도, 구약의 선지자들도 하나 같이 이 땅의 구원자(예수님)가 오실 것을 예언하였다.”고 한다.[277] 그러나 “죄 있는 이사야, 석가, 공자에게는 음성으로 전하거나 보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하여 하나가 되지는 않으셨다.”고 하며 그들의 독특한 영과 하나 되는 교리를 드러내고 있다.[278]

흥미로운 것은 석가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는 죽은 후에라도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그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벧전 3장, 4장 참고).”라고 주장하는 점이다.[279] 이 한 구절뿐이기에 단언 할 수 없으나 신천지는 사후 복음 전도와 사후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인가?

III. 신천지의 자의적인 성경 해석

271) 신천지 총회 교육부,『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150, 161.
272) 신천지 총회 교육부,『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236.
273) 신천지 총회 교육부,『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152, 161.
274) 신천지 총회 교육부,『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152. Cf. 신천지 총회 교육부,『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196.
275) 신천지 총회 교육부,『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162.
276) 신천지 총회 교육부,『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121.
277) 신천지 총회 교육부,『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15, 24.
278) 신천지 총회 교육부,『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23.
279) 신천지 총회 교육부,『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36.

위에서 우리는 신천지가 교리적으로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고 매우 비성경적이라는 것을 살폈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이 미리 가지고 있는 기존의 이해에 따라서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신천지의 자의적 성경해석은 너무 많아서 어떻게 다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이다. 여기서는 그들의 자의적 성경 해석 중 일부만을 지적해 보고자 한다.

1. 창조에 대한 해석의 문제들

창조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늘 영계에서 이루신 것 같이 이 땅에서도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 이것이 곧 천지 창조이다(창 1:1, 계 21:1)."라고 말한다.[280] 창세기 1:1이 소위 영계(영적 세계)의 창조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무시한 그들 나름의 해석이 아닐 수 없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드신 사람도 하나님과 같은 형상의 신이다."라는 신천지의 주장이[281] 얼마나 큰 문제인가는 이미 지적한 바 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에덴에 계셨다. 이곳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은 떠나가셨다. 그리스도께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다시 오실 때 사람의 범죄로 인해 떠나가신 하나님도 함께 오신다."는 주장은[282] 신천지의 신인합일체 교리의 기본적 토대가 되는 해석이다. 이는 성경 구절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고정하여 생겨나는 문제를 잘 드러내고 있다. 더 나아가 이상한 해석은 가중되는데, 그들은 "아담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에게서 떠나 노아에게 가서 함께 하셨으니(창 6장)"라고 말한다.[283] 이것은 성경의 전체적인 뜻을 생각하지 않고, 극단적 문자적 해석을 끝까지 밀고 가서 나오는 이상한 논의가 되는 것이다. 또한 "근본에서 달라진 것은 노아가 아닌 아담이다. 하나님과 그 말씀에서 보아 노아는 변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에서[284] 그들이 노아의 상태를 무죄한 상태로 생각하는 듯한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조건에 있는 것으로 보는가 하는 의문이 들게 할 정도이다.

"성령이 임한 예수님이 참포도나무이며(요 15:1), 참 포도주는 성령이 주는 예수님의 말씀이다."고 하면서[285] 이로부터 그들은 아예 "성령이 임한 생명나무는 예수님이었다"고 단언하기도 한다.[286] 그리하여 생명나무가 에덴에 물리적으로 있었던 것을 거부하거나 무시하거나 그 실제보다는 그 의미만을 중요시하여 제시하는 것이다.

또 그를 통해서 "예수님과 같이 말씀으로 된 사람"도 생명나무가 된다고 한다.[287] 이로부터 그들은 "창세기의 생명나무는 식물이 아닌, 생명의 말씀으로 난 사람 곧 신의 아들이

280) 신천지 총회 교육부,『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113.
281) 신천지 총회 교육부,『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17.
282) 신천지 총회 교육부,『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158. Cf.『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200, 272; 신천지 총회 교육부,『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23.
283) 신천지 총회 교육부,『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279.
284) 신천지 총회 교육부,『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279.
285) 신천지 총회 교육부,『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43.
286) 신천지 총회 교육부,『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82, 95, 98.
287) 신천지 총회 교육부,『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82f.

었다"[288]는 기괴한 해석을 하는 것이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사람은 곧 생명나무가 된다"고 하는 것이다.[289] 이로부터 그들은 "오늘날 약속의 목자인 이긴 자는 계시록 2장, 3장과 12장과 같이 이기고 12지파를 이루었으니 마땅히 생명나무라 할 것이다."고 말하기도 한다.[290]

이와 연관하여 "선악나무도 식물이 아닌 신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마귀가 함께 하는 나무"로 이것이 "창세기가 말한 선악 나무"라는 역시 기괴한 해석을 제시한다.[291] 그리하여 "마귀가 함께 하는 사람이 곧 선악나무가 된다"고 주장한다.[292]

2. 신천지 사상에 근거한 자의적 해석과 왜곡

계시록 6:1-8의 백마 홍마 흑마 청황색 말과 탄자를 해석하면서 그들은 "출현하는 말들은 육체요(사 31:3) 탄자는 영이다"라는[293] 이상한 해석을 제시하여, 영이 육에 임한다는 그들의 생각에 따라서 이 부분을 해석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에스겔서 37장이 예수님 때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면서, 이는 결국 "영이 죽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신 곧 성령을 주어 살게 하신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294]

그리하여 결국 자신들의 사역과 관련하여 말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떠나신 6천 년간 사단이 인류를 자기 모양 자기 형상으로 변화시킨 것을,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새롭게 할 때이다."라고 한다.[295] 그런데 성경과 바른 신학에서는 어디서도 타락한 인간이 사단의 형상과 모양으로 변화되었었다고 말해 본 적이 없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은 아버지를 모신 자신을 성전이라 하셨고 천국이라 하셨다(마 13:24, 37)."고[296] 하면서 선전 개념과 천국 개념을 자기들 식으로 변형시키고 있다.

또한 재림 약속을 언급한 후에 마태복음 23장 39절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한다 하셨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누구신가? 그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이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은 사람 속에 거하신다."[297]

"또 비유된 말씀에 각 교단의 주관자를 왕 또는 임금이라 하였으니(계 17:9-10 참조), 자기 교단이 아닌 다른 교단을 이방이라 한 것이다."는 해석도[298] 성경의 자연스러운 의미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입장에서 곡해 하는 대표적인 에로 언급할 수 잇을 것이다.

3. 도식화된 해석의 연결로 인한 왜곡된 성경 해석

---

288)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83, 92.
289)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99.
290)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100.
291)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83, 92-94, 95.
292)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99.
293)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289.
294)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122.
295)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305.
296)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28.
297)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124.
298)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203.

신천지는 기본적으로 “나무는 사람이요”(사 5:7, 단 4:20-22, 요 15:1-5)라는[299] 해석을 고착화하여 우리가 에서 본 이상한 생명나무, 선악 나무 이론을 만들어 냈다.

또한 “이 나무에 앉은 새는 영이다(마 3:16).”는 해석에[300] 집착하여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면 생명나무가 되고, 악령이 임하면 선악무가 된다는 이상한 생각도 발전시켰다. 또한 이로부터 “이 나무에 씨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하나가 되매 나무가 곧 천국이다.”는[301] 이상한 결론을 도출한 것이다.

신천지가 도식화한 해석의 또 다른 예로 “해, 달, 별”에 대한 해석을 들 수 있다. 기본적으로 신천지는 “해, 달, 별이 있는 선민 장막을 하늘이라 하고(계 12장), 이스라엘을 해, 달, 별이라 하였으니(창 37:9-11), 영계의 하나님이 함께 하는 선민(해, 달, 별) 장막을 하늘이라 한 것이다(계 13:6 참조).”는 해석을 기반으로 모든 해석을 하여 나간다.[302] 이를 비유적 해석이 확장되어 다음 같은 표현도 나타난다: “야곱의 가족이 해, 달, 별이라고 하였으니(창 37:9-11), 가족의 처소 곧 해, 달, 별의 하늘인 것 같이 열두 제자들을 둔 예수님이 곧 하늘이요 궁창이며, 땅은 흙으로 된 육체들이다. 다시 말하면 하늘은 하나님의 장막 (성전)이며, 땅은 흙으로 창조된 사람들이다.”[303]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라는 것이다. 또한 이를 확장하여 신천지는 자신들이 모인 것이 천국이라는 결론을 도출해 낸다. 예를 들어서, 그들은 “이 천국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물은 후에 “아는 사람은 오직 신천지예수교 사람들뿐이다”라고 말한다.[304] “신약 성경이 말한 하나님과 예수님과 천국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 그곳은 약속의 목자인 이긴 자가 있는 곳이다.”[305] 또 다른 곳에서는 이를 다음같이 말하기도 한다: “재림 때의 하나님과 예수님과 천국에 가려면 누구에게 가는 것이 곧 천국 하나님께 가는 것이 되겠는지, 성경을 믿는 성도는 판단하고 믿어야 한다.”[306] 이와 같이 해, 달, 별은 모두 선민 또 때로는 배도한 선민으로 해석되고 있다.[307]

또한 이상한 해석을 따라 열 처녀 비유에 나오는 등과 기름을 해석하면서, 시편 119:105을 따라 등은 성경 이라고 하고, 기름은 감람나무 가름이니 “두 증인의 증거의 말씀”(계 6:6)이라고 해석하면서, “종말 사건과 주 재림 때 보고들은 실상을 증거하는 두 증인의 말이 감람유”라고 하면서 “종말 사건을 본 자의 증거(영적 기름)을 받아야만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맞이하여 혼인 잔치 집에 참예할 수 있다.”고 주장하여[308] 자신들의 가르침을 받아야만 한다고 기괴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부터 그들은 “어린 양의

299) 신천지 총회 교육부,『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56.
300) 신천지 총회 교육부,『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56.
301) 신천지 총회 교육부,『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57.
302) 신천지 총회 교육부,『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29.
303) 신천지 총회 교육부,『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72.
304) 신천지 총회 교육부,『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158.
305) 신천지 총회 교육부,『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159.
306) 신천지 총회 교육부,『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181, 193.
307) 신천지 총회 교육부,『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40, 82, 158, 277, 290, 298, 309; 신천지 총회 교육부,『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58, 65-67, 특히 66, 72, 137, 222.
308) 신천지 총회 교육부,『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137.

혼인 잔치 집의 증거는 소와 짐승을 잡아 놓은 것이며(마 22:1-14 참고), 이 소와 짐승이 잔치 집의 영육 손님이 먹을 양식(증거 받을 내용)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증거가 곧 성도가 갖추어야 하는 기름이다."라는[309] 알레고리에 알레고리를 더 하는 해석의 극치도 선보인다.

이상스럽고 문자적인 해석을 한 후에 "개와 돼지는 몰각한 목자, 배도한 목자를 말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310] 또한 비슷한 과정을 거쳐서 "성경에서 비유한 짐승은 하나님과 그 말씀을 모르는 이방 목자 또는 성도를 멸망시키는 이방목자를 가리킨다."고 주장한다.[311]

4. 좁은 해석으로 인한 왜곡의 예들

신천지는 세대주의적인 해석의 개악된 변형 같은 구약 역사를 제시하면서 "솔로몬이 이방 신당을 지어 이방 신에게 절함으로(왕상 11장) 아담 같이 언약을 어겼으므로(호 6:7), 온 이스라엘이 멸망을 받았다."고 한다.[312] 여기서 솔로몬의 범죄만으로 이스라엘이 멸망했다고 말 하는 것도 지난 친 것이고, 그 일에 호세아 6:7을 적용한 것도 호세아가 말하는 폭넓은 죄악 지적을 솔로몬의 죄에만 한정한 것도 잘못된 성경 해석이라 할 것이다.

5. 신천지에 적용하면서 나타난 본문의 자의적 해석과 왜곡

신천지는 재림주가 영적으로 온다는 자신들의 이해를 뒷받침하기 위해 "누가복음 17장 22-24절에는 번개 같이 오시므로 보지 못한다 하셨으며"라고 말하는 것은[313] 그야 말로 전체 문맥을 생각하지 않고 인용하여 성구의 뜻을 완전히 왜곡시킨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요한계시록 11:19을 해석하면서 이를 "성전을 맡은 목자에게 진노를 담아 이 방에게 쏟아지게 하는 것이며, 노하신 목자(사 28:2, 17 참조)의 말이 곧 심판의 불과 피가 섞인 우박으로 비유된 것이다."라고 기괴한 해석을 하며,[314] 자신들의 목자가 하는 말의 큰 권세를 강조 하는 것으로 변형시키고 있다. 이것도 적용적인 자의적 해석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것이다.

배도를 언급하는 데서 이런 적용적 왜곡이 가장 많이 나타난다. 그들은 "오늘날 우리(구원자 12지파)에게서 위(位)와 처소를 떠나 가인과 발람같이 유리하며 당을 짓고 대적하며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가 있다."고 하면서,[315] 그를 "배도자"라고 언급하기도 하고,[316] 아예

309)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138.
310)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206.
311)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207.
312)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262.
313)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282.
314)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293f.
315)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103, 111, 179(여기시는 그가 신 모 씨라고 밝히고 있다), 204. 좀 더 구체적인 언급으로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155f., 192, 208,

신배도라고 말하기도 하며,[317] "이 시대의 적그리스도"라고도 언급하기도 한다.[318]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마 13:47-48 참고)이 곧 들림 받는 것이 되고, 배의 주인 곧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된다."는 말도[319] 신천지와 함께 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생긴 왜곡일 것이다.

이런 적용적 왜곡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신천지의 성립 과정을 요한계시록에 비추어 설명하는 그들의 상투적인 신천지 역사 이해에서 가장 잘 나타난다. 그들은 다음 같은 식으로 말하기를 자주 한다:

> 신천지 예수교의 사자(목자)는 예수님의 지시에 순종하고, 보고 들은 것을 책에 써서 계시록 2, 3장의 일곱 사자에게 편지하였다. 그리고 계시록 4장의 하나님의 영계의 나라와 같이 24장로를 세웠으며, 또 일곱 등불의 사자를 세웠고, 네 그룹(네 생물)인 부서장을 세웠으며, 네 그룹에게 각기 여섯 날개(부서 임원들)를 붙였고, 많은 눈 같은 성도들이 조직되었다. 또한 계시록 7장과 같이 인 맞은 12지파 14만 4천명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치고 있으며,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피의 말씀으로 빨아 흰 옷을 입고 있다.[320]

이는 신천지가 얼마나 자신들의 하는 일을 요한계시록의 실현으로 제시하고 있는 지를 잘 보여 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여기서 요한계시록의 본뜻은 사라지고, 신천지가 과거에 한 일과 하고 있는 일만이 남은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대표적인 적용적인 성경왜곡이 아닐 수 없다.

6. 알레고리적 해석

신천지의 알레고리적 해석은 아주 기괴하여 다음 같은 식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추수 때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추수 때 가라지는 불사르기 위해 먼저 단으로 묶는다(마 13:30) 누가 묶는가? 자기 목자이다. 어디에 묶는가? 자기 교회이다. 묶인 자들은 마귀의 씨로 난 마귀의 자식들이며, 이들은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된다."[321] 이로부터 그들은 다음 같은 알레고리 극치의 결론도 이끌어 낸다: "추수 때는 자기 목자의 말을 듣기보다, 성경의 예수님의 말씀대로 구원자인 추수 꾼의 말을 믿고 구원받는 곳으로 추수되어 가는 자가 복이 있고 구원을 받게 된다."[322]

210-11도 보라.

316)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207;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155.

317)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156f.

318)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204;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156, 192.

319)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295.

320)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115.

321)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102.

322)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103.

다음 같은 정말 잘못된 알레고리도 동원되고 있다: (새 신자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신랑인 성령과 신부(목자)가 성령의 씨로 자녀를 낳았으면, 그 자녀는 성령과 신부의 자녀가 아닌가?.... 신부로서 성령의 자녀를 낳은 것이다.”[323] 도무지 성경적 지지를 받지 못할 이런 기괴한 표현은 알레고리적 해석을 계속하다 나타나는 부작용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요한계시록 18장의 큰 상인들을 “땅 곧 육체가 된 바벨론 교인들을 상대로 장사하는 영적 상고(장사꾼)들 곧 전도자들”이라고 하면서[324] 그들의 사치는 “영적 사치”로 “사치로 꾸며 입은 옷은 바벨론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받은 각종 학위증 등이고, 세력은 그들이 배운 학술로 인해 잡은 교권을 말한다”고 기괴하게 해석하는 것이다.[325] 또한 이 본문의 “배는 교회, 선장은 목자, 선원은 안내하는 전도자, 선객은 교인, 바다에서 일하는 자는 교회의 각 부서장을 말한 것이다.”는 해석도[326] 알레고리를 지속하는 잘못된 해석이다.

7. 잘못된 이해와 성경 왜곡

“모세의 시체도 이 땅에 없고(막 9:4-8, 유 1:9 참조)”라는[327] 이해도 자신들의 생각에 따라 성경을 왜곡하는 것이며, 요한계시록 20:12의 보좌 앞의 책들을 “성경 66권”이라고 해석하고는[328] 것도 그런 예의 하나이고, 따라서 인간의 모든 행위를 기록한 책은 “자신(의 마음)”이라는 이상한 해석을 제시한다.[329]

자의적 성경 해석 이상으로 성경을 자신들이 믿는 바에 근거해서 왜곡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기로 한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는 말이 있다. 그런데 신천지에서는 이를 인용하면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 곧 예수님은 우리의 어머니라고 표현하였다고 말한다.[330] 이것은 신천지의 독특한 이해를 전제로 한 성경 왜곡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그들은 하나님(神)이 사람의 몸과 합하여 진다는 그들 나름의 주장을 하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임하여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라고 주장하면서[331] 그렇기에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임하여 올 수 있고, 이만희가 그렇게 된 사람이며, 그를 본 받아 “하나님의 성령과 우리의 영이 하나가 되는 것을 [영적] 결혼,”[332] 또는 “산약의 영육 결혼”이라고[333] 하면서 그들의 주장을 하여 가는 것이다. 이를 말하기 위해 그들은 갈라디아서 4:26절을 자기들 마음대로 변형하여 인용하는 것이다.

---

323)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105.
324)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232-34, 36.
325)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232.
326)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235.
327)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30.
328)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307.
329)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78.
330)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23.
331)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23.
332)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23.
333)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24.

Ⅳ. 결론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신천지는 명백한 이단이고, 사실 이단보다 더한 새로운 종교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자세히 논하지 않아도 신천지가 이단임은 누구라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그들은 "지금 이 세상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약속(요 14:26) 곧 예언에 대한 그 뜻을 풀 수 있는 곳이 신천지 외에 또 있는가? 신천지 외에는 그 뜻을 풀 수가 없고 오직 신천지에서만 풀 수 있다."고 주장한다.[334] 따라서 그들은 "온 세계 가운데 계시된 성경을 통달한 자는 오직 신천지 성도들뿐이다"라고 주장한다.[335] 이들이 도통군자(道通君子)라는 것이다.[336] 더 나아가 이 신천지에 속해야만 구원 받는다고 한다. 그들은 계속해서 "사랑과 선행을 행하는 성도와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337] 이는 신천지에 속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것이야 말로 신천지가 이단임을 명백히 드러내는 증거이다. 그런데도 그들은 신천지를 성경과 바른 신학에 근거해서 비판하는 정통 교회가 "이단"이요,[338] "마귀 신이 그들을 주관하고"[339] 따라서 그들은 "마귀 신과 하나된 종단" 주장한다.[340] 또한 "신천지 역사를 방해하는 자는 악을 행하는 자"라고 하고,[341] "신천지를 핍박하는 자는 미혹하는 대적자요, 구원이 없고 무서운 형벌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라고 강하게 말한다.[342] 그들의 생각과 가르치는 바를 심각하게 살펴보면 신천지는 기독교 이단도 못되는 다른 생각을 가진 사이비 종교라고 해야 한다. 예수님과 성령님, 삼위일체 뿐 아니라 거의 모든 교리와 성경 구절들을 너무 왜곡하고 있으므로 이를 기독교 이단이라 하기도 어려운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신천지가 "진리를 배우자",[343] "성경대로 하자" "진리를 따르자" "예수님의 말씀대로 판단하자", "성경으로 말하고 성경으로 답하자"[344] 등등의 말을 할 때에 그 말을 신천지가 말하는 전후 문맥을 살펴서 알아들어야 한다. 이 모든 말은 결국 자신들이 해석해 주는 대로 믿고 따르라는 말이기 때문이다. 단언하건대, 신천지는 성경을 따라 가지 않으며, 성경에 충실하지 않고, 진리에 서지 못하며, 항상 거짓으로 진리인 성경을 왜곡하는 것이다. 신천지가 "성경대로"를 강조해도[345] 그들은 결국 그것을 성경대로 해석하

---

334)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41, 199.

335)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86. 비슷한 말을 하는 다음도 보라: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97, 99, 101, 107, 130, 156, 199, 225, 234, 251f., 253, 271;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16, 30, 32, 77, 88, 126, 170, 171, 175, 177, 196, 206, 209, 219, 284, 296.

336)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219, 220, 282162.

337)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61.

338)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18, 25, 30, 35, 45, 53, 60, 62, 131, 191, 199, 201, 214, 215, 220, 226, 233, 255, 257, 271, 280, 281;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144, 145, 183, 193, 195, 196, 201, 206.

339)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II』, 293.

340)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280.

341)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139.

342)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205.

343)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21.

344)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77, 79f.

345)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 24, 225; 신천지 총회 교육부, 『진리의 전당, 주제

며, 그 바른 뜻대로 가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성도들은 신천지의 가르침에 현혹 되지 말아야 할 것이고, 신천지에 속한 이들은 하루 빨리 성경적 진리에로 돌아 와야 할 것이다. 그 영혼이 불쌍함을 생각하며 성도들은 이들이 참 진리에로 돌아오도록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신천지에 계속 속해 있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단은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 성경을 바로 해석하지 않으면 항상 잘못된 대로 이끌려 가기 쉬운 것이다. 부디 우리가 이런 잘못된 해석을 따르지 말고 보다 바르고 건전한 성경적 가르침에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별 요약 해설 II』, 309.

신천지 성구풀이에 대한 개혁신학적 비판

발제자: 김성봉 박사

서울대학교 철학과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독일 뮌스터대학교 신학부 신학박사

전, 안양대학교신학대학원 원장
현, 대신총회신학교 교수부장
현, 신반포중앙교회 담임목사

I. 문제점과 비판
1. 교주에 대하여 노골적으로 주장하는 내용과 그에 대한 비판
2. 신도에 대하여 은연중에 주장하는 내용과 그에 대한 비판
3. 부차적인 내용과 그에 대한 비판

II. 저들의 주장의 요점
1. 기성교회에 대한 적대감
2. 비유풀이식 해석
3. 교주 이만희에게로 귀결
4. 선민의식

맺음 말

신천지의 성구 풀이에 대한 개혁신학적 비판

I. 문제점과 비판

1. 교주에 대하여 노골적으로 주장하는 내용과 그에 대한 비판

1) 사 1:1-2:4/ 이사야서 전장의 요약

"유다 왕 웃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주장 : 이사야서는 하나님께서 택하고 언약(창조)한 선민 유다와 예루살렘이 배도함으로 이방에게 멸망당하여 심판 받아 없어짐으로 한 세상이 가고(1장), 그 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다시 택하여(재창조)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세상에 충만할 것(2:1~4)을 예언한 구약의 대표적인 예언서로서, 전장 66장을 요약해 놓은 것이 사 1:1~2:4까지의 말씀이다.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 나라와 선민 창조의 노정을 요약하면, 목자(유다) 택함-장막(예루살렘) 창조-언약-배도-멸망-새 목자 택함-새 장막(새 예루살렘) 창조-대적심판과 구원-새 언약-생육•번성•충만•정복•다스림의 순리이다.

배도와 멸망의 사건 후에 재창조된 새 예루살렘을 시온산(사 2:3; 16:1; 28:16; 33:20; 65:25)과 새 하늘 새 땅(사 65:17-19; 66:1, 22)이라고 비유하기도 한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니, 7별 7금 촛대가 있는 유재열의 첫 장막(=처음 하늘/계 13:6)이 배도함으로 7머리 10뿔 짐승인 오평호 목사의 청지기 교육원에 사로잡혀 멸망당한 후 짐승과 싸워 이긴 한 목자(이만희)를 택하시고 새 장막을 창조하셨으니 바로 새 하늘 새 땅(新天地) '증거장막성전'(계 15:5; 21:1)인 것이다.

이러한 천국 창조의 원리를 요약한 것이 말세 주 재림의 노정인 배도-멸망-구원의 순리(살후 2:3)이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알아야 할 세 가지 비밀은 배도의 사건과 멸망의 사건과 구원의 사건이다.

비판 : 여기에 유재열, 오평호, 이만희를 직접 거명하면서 성경을 풀이하고 있다. 너무나 자기 중심적이요 아전인수격인 해석과 적용이다. 마치 전 세계의 역사가 과천의 장막성전을 중심으로 돌아가듯이 말한다. 과연 그런가?

2) 사 53:10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

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주장 : 상함을 받으시는 그는 초림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며,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주님이 보게 된다는 '씨'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진리의 성령 다른 보혜사에 대한 약속으로, 재림 때 말일에 나타날 약속한 목자는 다시 떠나가지 않고 영원히 살면서 성경의 모든 예언을 다 이루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다.

비판 : 본문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본 것은 잘한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씨'는 보혜사 성령을 가리키기보다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제물로 죽으신 결과 생겨 날 '그를 믿는 자들'로 보아야 할 것이다(박윤선). 저들이 여기서 굳이 '진리의 성령 다른 보혜사'와 '약속한 목자'를 언급하는 것은 교주 이만희에게로 귀결시키려는 의도에서이다. 메시야에 대한 구약 예언과 연관하여 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는 것에 대하여는 비교적 건전하다. 하지만 재림 때 혹은 말일과 연관하여서는 예수는 간 곳 없고 '다른 보혜사,' '약속한 목자' 등의 이름으로 교주 이만희가 언급된다.

3) 사 61:1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며"

주장 : 이 말씀은 예언이며 성취된 짝의 말씀은 눅 4:17절 이하의 말씀이다. 본문은 주의 영이 당시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하여 기름을 부은 것 같이 기록되었지만, 사실 이 말씀은 약 7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었고, 예수님은 오셔서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날(예수님 당시) 너희 귀에 응하였다고 하심으로 사실상 이사야 61장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를 빙자하여 예수님을 증거한 <u>인명을 빙자한 비유의 예언</u>이었음을 밝히 드러내신 것이다.

이와 같이 구약의 선지자를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어 초림 예수님을 증거 하였듯이, 재림을 약속한 요한계시록도 <u>말일에 나타날 약속의 목자를 그 당시 사도요한을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어 기록한 것</u>임을 깨닫고, 이와 같이 나타날 <u>오늘날의 사도요한 격인 사명자</u> 한마디로 <u>새 요한</u>을 만나야 비로소 요한계시록의 비밀을 밝히 깨닫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다.

비판 : 여기서도 소위 비유풀이의 방식으로 계시록을 언급하며 결국에는 '새 요한'이라 불리는 교주 이만희에게로 귀결되도록 말하고 있다. 본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다 해서 같은 방식으로 계시록을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서도 일단 전후를 살펴서 가부를 확인해야 하겠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 적용이 이만희라고 말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4) 사 62:1-5

"나는 시온의 의가 빛 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 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뭇 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네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 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쁄라(쁘ㄹ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주장 : 본문의 시온과 예루살렘은 장차 오실 메시야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으로서, 2천 년 전 예수님으로 성취되었음을 안다. 이는 지명을 빙자하여 비유를 베푼 것이며, 나아가 시온과 예루살렘을 여호와의 새 이름으로 일컬을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인데(출 3:15) 여호와의 새 이름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이사야 선지자는 처녀에게서 한 아들이 태어나는데(사 7:14) 그 아이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증거했다(사 9:6). 이 예언이 이루어졌으니 그 아이가 바로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예수님이었다. 이 아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었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나님이 작명해 주셨으니, 이 '예수'라는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인 것이다. 구약에서 원래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였으나 예수라고 일컫게 됨으로 이 '예수'라는 이름이 여화와 하나님의 '새 이름'이 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사야 62장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 것이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예수님의 새 이름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새 이름을 이기는 자에게 기록한다고 하셨으니(계 3:12) 이기는 자의 이름이 예수님의 새 이름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또한 신랑으로 비유된 하나님의 성령이 신부로 비유된 예수님의 육체에 임하셔서 하나 됨으로(혼인) 임마누엘이 되신 것 같이, 재림 때는 영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사자(계 22;16)에게 오셔서 하나 됨으로 예수님의 성령은 신랑이 되고 예수님의 사자는 신부가 되어 하나 됨(혼인)으로 성령과 신부가 오라고 하시는 것이다(계 22:17).

비판 : 시온과 예루살렘이 장차 오실 메시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그 때의 유대 민족을 표상하지만, 장차 올 신약 시대의 하나님 백성도 가리킨다(박윤선). 이 예언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으므로 여호와의 새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데, 이 단락에서는 장차 올 신약 시대의 교회가 얼마나 눈부시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일에 대하여 보여주고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새 이름이란 신약 시대의 신자들이 장차 하나님에게서 받을 이름이다. 신자들은 양심적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한 옛사람이 아니고 새사람인만큼 하나님의 새로운 판정을 받게 된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부터 되는 일이겠지만 내세에 들어가서는 그 판정이 완결된다(박윤선).

이 단락에서 계 22:17을 희한하게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 여기서 성령은 성령이며 신부는 교회이다. 그럼 신랑은?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다. 그런데 저들은 말하기를 "영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사자(계

22;16)에게 오셔서 하나 됨으로 예수님의 성령은 신랑이 되고 예수님의 사자는 신부가 되어 하나 됨(혼인)으로 성령과 신부가 오라고 하시는 것"이라고 하면서 저들의 교주 이만희에게서 그 실현을 보는 듯이 은연중에 말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저들의 독특한 비유풀이 방식을 적용하는데, 우리 주님의 성육신과 관련하여 "신랑으로 비유된 하나님의 성령이 신부로 비유된 예수님의 육체에 임하셔서 하나 됨으로(혼인) 임마누엘이 되신 것"으로 말한다. 이런 표현을 하는 저들에게는 전통적인 삼위일체 교리가 설 자리가 없다.

5) 겔 3:1-5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주장 : 에스겔을 인자라 하심은 예언이 성취될 때 실상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염두에 둔 <u>인명을 빙자한 비유적 표현</u>이며, 약 오백년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마 15:24)고 말씀하시고, 12제자들에게도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마 10:5-6)고 하심으로 성취된 것이다. 그러므로 두루마리를 받아먹고 패역한 이스라엘에게로 보냄 받은 에스겔은 장차 올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요 17:8)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심으로 에스겔의 예언이 비로소 성취되었던 것이다.

요한 계시록 10장에도 사도요한에게 펴 놓인 책을 주어 먹게 하고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라고 하심은 <u>주 재림 때 나타날 한 목자를 예언</u>하고 있는 것이다. 성취될 때 사도요한의 입장에서 출현하는 한 목자가 펴 놓인 책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받아먹고 다시 예언하게 되니, 이 목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요(렘 3:14),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며(마 24:45), 감추었던 만나를 받는 <u>이긴 자</u>요(계 2:17), 계시와 말씀을 받고 12지파 십사만 사천의 종들을 인치는(계 7:3; 1:1-3) 사도요한을 빙자하여 비유로 약속한 <u>새 요한</u>인 것이다.

비판 : 역시 여기서도 비유풀이 방식으로 에스겔의 '인자'로부터 시작하여 계시록의 '요한'을 거쳐 저들의 교주 이만희에게로 귀결시키고 있다.

본문에서 선지자 에스겔을 지칭하여 말하는 '인자'(벤 아담)는 에스겔 자신을 "연약한 인간"이라고 하여 겸비하게 하려는 것이다(박윤선). 에스겔 선지자는 단순히 비유로서가 아니라 그 때 자신의 현실을 살았다. 그리고 에스겔의 경우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된 예표라고 말하는 데는 전후 맥락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요한계시록 10장에서도 당사자는 사도 요한이며 그는 자신의 시대를 구체적인 현실로 살고 있었다. 표

현은 에스겔에서 빌어 온 것으로 볼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 내용이 예표가 되고 그 실상이 오늘날의 새 요한인 이만희에게서 성취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지나친 아전인수격인 주장이다.

6) 학 2:23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주장 : 제2성전 건축을 주도했던 역사적 인물인 총독 스룹바벨을 빙자하여 메시야에 대해 예언한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택하시고 그를 도장(印)으로 삼으셨다. 이름이 새겨진 도장은 말씀을 받은 목자를 비유한 것으로, 그 목자를 통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인친다고 표현하며, 그 말씀을 받아 마음판에 새기는 것(잠 3:3)을 인 맞았다고 비유한다. 스룹바벨을 빙자하여 비유한 하나님의 인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눅 9:35) 말씀을 주신(요 17:8) 예수님이었고(요 6:27), 예수님께서 보고들은 것을 증거하실 때 그 증거를 받는 이들은 인 맞은 것이었다(요 3:33).

주 재림 때도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가 손에 인을 가지고 와서 12지파 십사만 사천을 인치는 일이 예언되어 있는데(계 7:1-4), 이는 영(靈)인 천사가 한 목자를 택하고 말씀을 주어 인(印)을 삼아서 그를 통해 대언하게 하므로, 12지파 십사만 사천을 모을 것을 예언한 것이다. 그러므로 천사의 손에 있는 도장은 천사로부터 펴 놓인 책을 받아먹고 나라(교회)와 백성(신도)과 방언(교리)과 임금(목자)에게 다시 예언하라(계 10:8-11)고 명을 받고 예언하는 오늘날의 새 요한이 되는 것이다

비판 : 여기서도 비유풀이 방식을 통하여 스룹바벨로부터 출발하여 예수님을 넘어 교주 이만희에게로 집중시킨다. 구약 예언으로부터 예수님에게까지는 건전한 가르침을 인용하면서 잘 하고 있으나, 재림 예수에게 돌려야 할 영광을 이만희에게로 돌리므로 그 영광을 가로채고 있다. 본문에서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스룹바벨로 대표된 하나님 백성을 영접하고 그들을 인장과 같이 귀하게 간수하고 영화롭게 하시리라는 의미이다(박윤선). 렘 22:24에는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과 관련하여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는 의미의 대조적인 표현이 기록되어 있다.

7) 말 3:1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주장 : 하나님께서는 장차 두 사자의 출현을 예언하고 있다. 먼저 보내는 사자는 하나님 앞에서 길을 예비하는 사자요, 다음은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너희가 구하는 바 주 곧 너희가 사모하는바 언약의 사자는 먼저 보내는 길 예비 사자의 전(殿)에 홀연히 임하실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다.

이 예언은 약 400년이 지나서 성취되었으니 그 실상의 두 사자는 세례요한과 예수님이었다. 마태 3장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의 등장 전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주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의

사역이 있고 나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다. 이것은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 곧 언약의 사자는 홀연히 길 예비사자의 전(殿)에 임하신다는 예언을 이루시기 위한 의도된 일이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먼저 보낸 길 예비사자이며 예비 장막 성소 안에 있는(히 9:2) 등불 역할의(요 5:35) 요한에게서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는 예수님에게 성령으로 임하심으로 성경의 예언을 이루신 것이다.

요한계시록에도 두 사자가 나오는데, 먼저는 7금 촛대가 있는 예비 장막, 첫 장막(성소)의 길 예비사자 7별 7사자들이고(계 1:20), 다음에는 이 첫 장막성전에서 출현하는 사자가 있으니 예수님께서 교회들을 위하여 보내시는 바로 그 언약의 사자다(계 22:16). 이와 같이 주 곧 우리가 사모하는 언약의 사자는 그 전(前)에 반드시 길 예비 사자가 먼저 나타나야 하고, 그 후에 반드시 예비 사자의 전(殿)에 출현하게 되어 있으니, 말라기 3장 1절의 예언은 주 강림의 노정과 순리 그리고 출현 장소에 대해 구약성경에서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근일에 예언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한마디로 구약에서 약속된 언약의 사자는 예수님이었고, 신약에서 약속된 언약의 사자는 이긴 자 새 요한인 것이다.

비판 : 요한계시록 22:16에서 언급된 “내 사자”가 “이긴 자,” “새 요한” 즉 교주 이만희라고 주장하는데, 여기서 말한 “내 사자”는 사도 요한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도 요한을 넘어 이만희에게로 적용하기 위하여 본문을 비유로 적용하면서 굳이 “새 요한”이라고 하는 것이다.

8) 말 4:5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주장 :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주 곧 언약의 사자가 오는 날이요, 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주시겠다는 예언이다. 말라기 3장 1절에서 주의 길을 예비할 사자를 먼저 보내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예비 사자가 바로 엘리야라고 구체적으로 적시하신 것이다. 이 예언이 성취됨으로 예수님께서는 오리라한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임을 밝히셨고(마 11:14),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올 것을 천사가 미리 기별(눅 1:17)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왕상 17장에서 엘리야가 그릿 시냇가에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 떡과 고기로 먹이셨고, 19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이방 여인 이세벨의 낯을 피하여 광야로 도망하는 일이 있었고, 왕하 1장 8절에 엘리야는 털이 많고 허리에 가죽 띠를 띠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 엘리야의 심령으로 온 길 예비 사자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고 묘사하고 있다(마 3:4).

이 등불 역사가 재림 때에도 나타나는 데, 7별 7금 촛대(계 1:20)의 장막성전의 역사요, 길 예비사자는 해를 입은 여자의 역사(계 12:1-6)로 나타나고, 언약의 사자는 해를 입은 여자가 하늘 장막(계 13:6)에서 낳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계 12:5)로 나타난다. 엘리야-세례 요한의 맥을 좇아 해를 입

은 여자도 7머리 10뿔 가진 용(뱀=마귀=사단)의 낯을 피하여 광야로 도망하게 되고, 그곳에서 양육을 받게 되니 하나님께서 이방의 거짓 교리로 먹이시는 것이다.

이는 에덴동산에서 배도한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히셨고, 엘리야도 털이 많고 허리에 짐승의 가죽 띠(짐승의 교리=비 진리)를 띠고, 까마귀(악령을 상징)를 통해 떡과 고기(비진리)로 먹이셨고, 세례요한도 가증한 약대 털옷과 역시 가죽 띠(짐승의 교리)를 띠고 이방의 상징인 메뚜기(욜 1:4; 2:25; 나 3:17)와 석청을 먹은 것과도 맥을 같이하는 내용인 것이다. 그래서 주 재림 때 되어질 말세의 사건을 기록한 요한계시록에 이방 여인 이세벨을 빙자 비유하여(계 2:20) 바벨론 음녀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비판 : 여기에 비유풀이식의 성경해석이 갖는 무지와 그 폐해가 나타난다. 엘리야와 세례요한이 입은 털 옷, 가죽 옷 등을 에덴동산에서의 가죽 옷과 연관시키면서 짐승의 교리인 비진리와 연관시키는 것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해석과 적용이다. 성경의 모든 표현을 비유로 보려는 저들의 관점이 이런 과도한 해석과 적용을 낳게 되는 것이다.

9) 요 14:16-26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주장 : 보혜사는 대언자(代言者)라는 뜻으로서(요일 2:1 대언자 혹 보혜사) 진리의 영, 대언의 영이며(계 19:10), 나아가 진리의 영, 대언의 영이 함께하는 육계의 대언자 또한 보혜사라고 할 수 있다. 초림 때는 진리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마 3:16)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요 17:8) 대언하신(요 14:24) 예수님이 육계의 보혜사였고, 재림 때는 펴 놓인 책(진리)을 가지고 오신 천사(영)가(계 10:1-2) 사도 요한에게 와서 책을 주고 다시 예언하라고 하셨으니(계 10:11), 오늘날의 이 <u>새 요한</u>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게 되는(계 1:2)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u>다른 보혜사</u>인 것이다. 하나님의 것을 예수님이 증거 한 것 같이 다른 보혜사는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증거 함으로(요 16:13-15) 예수님이 보혜사요 <u>새 요한은 다른 보혜사</u>인 것이다.

요점 : 초림 때와 재림 때를 대조하여 말하면서 초림 때와 연관하여서는 예수님을 분명히 말하면서도 재림 때와 연관하여서는 교주 이만희를 내세운다. 재림 때를 가리키는 요한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에게 주신 것처럼 되어 있는 것은 인명으로 하신 비유라고 말하면서 그에 해당하는 인물이 바로 새 요한 즉 이만희라는 것이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다른 보혜사를 새 요한과 연관시키면서 그가 바로 교주 이만희라는 것이다.

비판 : 본문에서 말하는 다른 보혜사는 장차 오실 성령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성삼위 하나님의 제 3위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10) 고전 13:8-12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 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주장 : 완전한 것이 오면 초보적인 것은 끝이 나고,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것은 끝이 난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 이후 오늘날까지 지속되어 온 예언과 방언과 지식은 언젠가 폐할 것에 대한 예언이다. 이 모든 것은 부분적이고 희미하여 하나님을 알아도 부분적으로 알 뿐이었지만, 온전한 것이 올 때, 얼굴과 얼굴을 볼 때는 예언이 성취됨으로 예언이 폐하여지고 실상이 나타나는 때를 말하는 것이다. 이 실상의 때가 바로 진리의 성령을 받은 다른 보혜사가 올 때요, 실상의 계시를 본 감람나무 증인이 출현한 때요, 펴 놓인 책을 받고 증거하는 계시록의 새 요한이 출현하여 시온산 증거장막성전에서 성경 66권을 밝히 증거하는 때이다. 초림 때 예수님이 오심으로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예언이 끝났던 것 같이 (마 11:13) 그 때에는 예언도, 방언도, 부분적인 지식도 다 폐하게 된다.

요점 : 실상이 나타나는 때 = 진리의 성령을 받은 다른 보혜사가 올 때 = 실상의 계시를 본 감람나무 증인이 출현한 때 = 펴 놓인 책을 받고 증거하는 계시록의 새 요한이 출현하여 시온산 증거장막성전에서 성경 66권을 밝히 증거 하는 때 곧 지금 교주 이만희가 활동하는 때라는 말이다.

비판 : 때에 대한 관점이 다르다. 본문에서 말하는 "온전한 것이 올 때"는 그 아래 나오는 두 번의 "그 때"(then)와 연관하여 칼뱅은 고후 5:6-7과 관련지으면서 "죽음 직후"(the time immediately after death)를 가리키기보다 "마지막 날"(the last day)을 가리킨다고 하였다.

2. 신도에 대하여 은연중에 주장하는 내용과 그에 대한 비판

1) 렘 3:14, 15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주장 : 성경에서 약속한 것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약속한 성전과 또 하나는 약속한 목자이다.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성읍(교회)과 족속(신자들) 중에서 하나 둘씩 택하여 시온(증거장막성전)으로 데려오고(계 14:1=15:5), 그들에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자(초림 때는 예수님/ 재림 때는 이긴 자=새 요한)를 주어 지식과 명철로 양육한다고 하셨으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주 재림과 말세의 징조를 말씀하신 중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예수님)에게 그 집(시온산 증거장막성전) 사람들(신천지 12지파 신도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예언이 성취된 때의 실상의 복음)을 나눠 줄 자가 누구냐"(마 24:45)고 하신 말씀과 같고, 계시록 14장에 어린양과 함께 시온산에 모인 십사만 사천 명이 6천 년간 봉해졌다가 이제 열려진 새 말씀(새 노래)으로 양육 받게 될 것을 예언한 것과도 일치하는 내용이다. 이 예레미야 3장 14-15절의 말씀이 응해지는 이 때 각 교회에서 하나 둘씩 익은 알곡들을 모아 들여 감추었던 만나요(계 2:17) 새 포도주며 새 노래인 실상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곳이 있으니 바로 시온 기독교 신학원인 것이다.

비판 : 본문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주겠다고 하시는 것은 일차적으로 유대인들이 포로 되었던 자리에서 회개한 뒤 본국으로 돌아 온 후에 있을 선한 지도자들의 인도를 가리키며, 이차적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신약 시대의 참된 지도자들을 가리킨다.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될 것을 말하면서 멀리 신약시대의 영적 축복을 소개한 것은 하나님 백성의 참된 회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성취될 것을 내다 본 것이다.

2) 렘 51:25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네 원수라 나의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 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주장 : 비유한 산은 성읍 또는 오늘날의 교회와 같은 조직체다. 성경에서 산은 배도의 산, 멸망의 산, 구원의 산이 있다. 선민의 성읍은 시온산(성)으로 비유하고, 바벨론과 같은 이방의 성읍은 멸망의 산으로 비유한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배도한 선민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데, 이 때 심판 받는 예루살렘을 불탄 성읍이라고 비유하시고, 다음에는 선민을 삼킨 대적을 심판하시는데, 이 때 심판 받는 바벨론을 멸망의 산으로 비유하시고 불탄 산이 되게 하신다고 경고하신 말씀이다. 그 때 거기서 피하여 나온 시온의 백성들이 모여 이룬 구원의 처소가 바로 시온산이며 구원의 산인 것이다.

요한계시록에도 배도로 말미암아 심판 받는 불붙는 큰 산=배도의 산(계 8:8), 선민 장막을 42달 동안 사로잡고 멸망시킨 짐승의 나라 바벨론(음녀)의 7머리=7산=멸망의 산(계 17:9), 짐승과 싸워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모인 증거장막성전(계 15:2-5)=시온산(계 14:1)=구원의 산이 말세에 순리대로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다.

비판 : 이런 논리에서 저들의 모임을 가리켜 '증거장막성전'이라고 일컫는 것이다. 산들을 배도의 산, 멸망의 산, 구원의 산으로 관찰한 것은 잘한 것이다. 하지만 본문에서 말하는 '멸망의 산'이 오늘날의 교회를

가리킨다는 말은 수긍할 수 없는 표현이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산이 저들이 주장하는 대로 저들의 모임인 '증거장막성전'인가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본문에서 말하는 '멸망의 산'은 그 때 세계를 망하게 한 나라 바벨론이다. 요한계시록에서 언급된 바벨론 멸망에 대한 선언은 구약에서의 이런 말씀들을 자료로 하여 교회를 대적하는 세상의 멸망을 예고하는 것이다. 저들이 (기성)교회를 적대시하며 바벨론이라고 일컫는 것은 스스로 교회로부터 자신을 잘라내는 행위이다.

*기존의 교회 조직체를 가리켜 바벨론이라 지칭한 것은 아마 종교개혁 당시에 종교개혁자들과 과격한 열성분자들에 의하여 이미 있었던 일로 여겨진다. 당시에 타락한 가톨릭 교회를 두고 바벨론으로 불렀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비판적 표현은 대단히 조심스러운 표현이며 교회의 표지에 대한 올바른 기준에 따른 표현이라야 한다.

3) 겔 31장

"열한째 해 셋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네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네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주장 : 앗수르 사람을 커다란 백향목 나무로 비유하셨듯이, 다니엘 4장에도 바벨론 느브갓네살 왕을 큰 나무로 비유했음을 본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커다란 백향목 나무가 에덴동산에 있었다는 것이다. 에스겔 28장에서 덮는 그룹이라고 한 두로 왕이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다고 하신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이것의 뿌리가 바로 에덴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 비밀은 요한 계시록의 음녀(바벨론)와 그가 탄바 7머리 10뿔 짐승의 비밀(계 17: 7)에서 다 드러나게 된다. 두로, 앗수르, 바벨론, 애굽을 빙자하여 비유로 장래에 나타날 사단의 나라와 그 조직체의 비밀을 감추어 놓았던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조직이 에덴동산에서 생명나무의 비밀과 예루살렘, 시온, 이스라엘을 빙자하여 비유로 간직해왔다면, 사단의 나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비밀과 바벨론, 앗수르, 애굽 등을 빙자하여 비유로 감추어왔던 것이다.

한 마디로 성경은 창세기의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두 세계로 시작하여 요한계시록의 시온, 새 예루살렘, 새 이스라엘로 상징된 생명나무의 실과를 받은 참 목자인 이긴 자의 나라(신천지 증거장막성전)와 바벨론으로 상징된 음녀 거짓 목자의 나라(일반 기성교회) 두 나라를 설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으로 성경을 상고하는 모든 신앙인들은 이 두 세계를 깨닫고 분별하여 생명나무(이긴 자)의 실과(말씀=교리)를 먹어야만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

비판 : 본문에서는 앗수르 왕의 위엄을 '레바논의 백향목'에 비유한다. 하지만 이것을 선악과와 연관시켜 해석하는 것은 비약이다.

저들의 주요 비판 타깃이 기성교회이다. 마치 종교개혁 당시에 열광주의자들이 취하였던 입장과 유사하다. 물론 기성교회가 저들을 비판하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겠으나, 비판타깃을 기성교회로 잡지 말

고 불신 이방세력으로 잡는 것이 오히려 더 타당할 것이다. 요한계시록의 시온, 새 예루살렘, 새 이스라엘로 상징된 생명나무의 실과를 받은 참 목자인 이긴 자의 나라가 바로 저들의 집단인 신천지 증거장막성전이며, 바벨론으로 상징된 음녀 거짓 목자의 나라가 일반 기성교회라고 하는 주장은 지나친 자기중심적인 주장이다.

4) 겔 47:1-12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 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주장 : 비유론에서 이미 배운 대로, 물은 말씀(암 8:11), 물이 흐르는 강은 전도자(요 7:38), 물의 근원인 샘이나 우물은 목자, 나무는 사람, 실과는 교리 또는 전도된 사람, 천하수(天下水/창 1:9-10)가 모여 이룬 용이 왕 노릇하는 바다(사 27:1)는 사단이 주관하는 비진리의 세상을 각각 비유한 것이다. 먼저 본문의 말씀이 이상을 통한 예언의 말씀임을 알 때, 다음과 같이 문자적으로나 육적으로 볼 수 없는 이유가 있다. 예루살렘성전에서 물이 나와 동방으로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 사해 바다에 이르러 사해의 죽은 물을 살려서 고기가 살게 되고 거기서 어부가 고기를 잡는 광경을 상상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능력이면 무엇을 못 하시겠는가? 그러나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해 바다를 살리고 고기를 잡아서 무엇 하시겠는가?

이는 영적 예루살렘 성전인 예수님에게서(요 2:19-21) 생명의 말씀(생수)이 나와 제자들(강)을 통해 세상(바다)으로 흘러가게 됨으로 비진리의 세상이 진리의 세상으로 변하면서(소성) 많은 사람들(나무들과 고기들)이 영적으로 살게 되고, 그 사람들을 복음으로 전도(그물로 고기를 잡듯이/ 마 4:19)하는 일이 있고, 소성함을 얻은 사람들은(생명나무) 전도를 하게 되니(열매를 맺음)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잎사귀)은 죽은 영혼들에게는 먹을 만한 열매와 영혼을 살리는 약재료가 된다는 말씀이다.

이와 같은 예언이 요한계시록 22장에도 있으니, 생명수(생명의 말씀)가 나오는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는 이긴 자가 있는(계 3:12, 21) 새 예루살렘인 신천지 증거장막성전이요, 달마다 맺는 12가지 열매는 12지파에서 달마다 수료하는 신천지 신도들이며, 미혹 받은 만국을 소성하는 생명나무 잎사귀는 비진리 가운데 있는 기성교회 신자들을 전도하는 신천지 신도들의 전도의 사명을 각각 비유한 것이다.

비판 : 구약의 예언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 하지만 재림의 때와 연관해서는 더 이상 예수님의 자리는 없고 오직 교주 이만희의 자리만 있을 뿐이다. 본문에 대한 해설에서도 결국 교주를 지칭하는 '이긴 자'가 언급되는 것이다.

5) 다니엘서

주장 : 느브갓네살 왕이 이상 가운데 본 2장의 큰 신상과 4장의 큰 나무와 다니엘이 이상 중에 본 7장의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모두 동일한 내용의 다른 환상으로서, 요한계시록의 7머리 10뿔 짐승과 짐승을 탄 음녀 바벨론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동일한 내용인 것이다. 이것이 바벨론, 메대 바사, 헬라, 로마 등 역사적, 육적으로 나타난 사건이라면, 2장의 큰 신상을 깨뜨리는 산에서 뜨인 돌의 실체는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뜨인 돌이 이룬 태산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나라라고 분명히 해석되어 있음을 볼 때, 이는 초림 때 예수님을 통해 선포된 천국으로 봄이 타당하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언제 어떻게 큰 신상의 발인 로마를 쳐서 멸했단 말인가? 예수님께서 심판하신 대상은 세상의 육적인 나라가 아닌 영적인 이방이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사단의 무리들이었다.

비유론에서 배운 대로 나라는 교회, 왕은 목자, 백성은 신도들을 각각 비유한 것을 안다면, 구약은 육적 선민과 이방의 육적 전쟁의 역사요, 신약은 영적 선민인 진리 교회와 영적 이방인 비진리 교회의 교권과 영권을 놓고 서로의 교리를 무기삼아 싸우는 영적 전쟁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엡 6:10-17).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상과 환상적 계시를 통해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빙자하고 비유하여 초림과 재림 때의 장래사를 예언하심으로, 실상으로 나타날 때까지는 간수하고 봉함하라(단 12:4, 9)고 말씀하신 것이다.

만일 이것이 육적이고 세상적인 사건으로 이미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실이라면 어찌 봉해졌다 할 수 있겠으며, 오늘날까지 다니엘서를 난해하다 하여 함부로 언급하지 않고 있단 말인가? 구약의 다니엘서와 짝을 이루는 신약의 요한계시록에서도 시온산의 이긴 자가 7머리와 10뿔 짐승의 나라 바벨론(음녀)을 이기고 받은 흰 돌(계 2:17/ 심판의 말씀)로 심판한 후에 시온산(증거장막성전)이 태산을 이룬다는 다니엘서의 말씀과 같이 온 세상에 창대케 될 것을 예언한 말씀이다. 이렇게 창조된 신천지 증거장막성전이 바로 말세 주 재림 때 하늘의 하나님이 세우시겠다고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 12지파 영적 새 이스라엘인 것이다.

비판 : 다니엘서에서의 장래사에 관한 예언을 일괄적으로 종말에다 집중시키는 것은 너무 일방적인 적용이다. 또한 비유론에서 말하듯이 “나라는 교회, 왕은 목자, 백성은 신도들을 각각 비유한 것”이라고 알고 획일적으로 적용하다 보면 해석과 적용에 무리가 따르게 마련이다. 무리를 해서라도 이런 해석 방식을 고집하는 이유는 결국 ‘이긴 자’로 표현된 교주 이만희에게로 집중시키기 위함이다.

6) 호 2:16-19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 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네게 장가 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 들며”

주장 : 하나님께서 그날에 장가들겠다는 약속의 말씀이다. 비유론에서 영을 신랑으로, 육을 신부로, 영이 육에게 임하여 함께 하는 것을 혼인(결혼)으로 각각 비유했다. 성령이신 하나님께서 한 육체를 택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신랑이 신부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겠다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다. 이 예언이 이천년 전 이루어졌으니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신 사건이다(마 3:16).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제 이사야 62장 4절의 말씀과 같이 혼자가 아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요 10:30) 결혼한 여자(뿔라)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셨다(헵시바). 하나님의 성령의 씨(말씀)를 받아 12아들을 낳으셨으니(고전 4:15) 12제자들이요, 이들이 영적 이스라엘 12지파의 씨가 된 것이다.

이와 같이 주 재림 때는 성령이신 예수님이 신랑이 되시고 택하신 목자가 신부가 되어 함께 하시고, 약속의 목자인 새 요한에게 펴 놓인 말씀의 씨를 주어(계 10장) 영적인 12아들을 낳고 그들이 한 지파에 12,000씩 십사 만 사천의 종들을 낳게 되니 이들이 바로 12지파 영적 새 이스라엘인 것이다(계 7:1-3).

비판 : 잘못된 비유론에 근거한 논리의 비약이 보이는 전형적인 예이다. “비유론에서 영을 신랑으로, 육을 신부로, 영이 육에게 임하여 함께 하는 것을 혼인(결혼)으로” 각각 비유하였다고 하는데, 이런 전제에 심각한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 영은 영이지 신랑이 아니며, 육은 육이지 신부가 아니다. “성령이신 하나님께서 한 육체를 택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신랑이 신부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겠다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라고 했는데,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신랑으로 비유하시면서 선민인 이스라엘을 신부로 비유하신 것이다. 본문의 내용을 성육하신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한 사건과 연관시키면서 본문의 예언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되며, 오히려 본문은 새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종교적 관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전하여지며 영원하게 될 것을 약속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건전할 것이다. 재림과 관계하여 말하면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돌려버리고, 소위 ‘택하신 목자’를 ‘약속의 목자 새 요한’이라고 부르면서 재림주의 자리에 앉히는데 그가 바로 이만희라는 것이다.

7) 히 11:39-40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장 :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을 설명한 끝에 이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다. 여기서 저희는 순교한 믿음의 선진들이고,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의 후손들이다. 순교자들은 육신은 잃었지만 영혼은 살았고, 우리는 육신은 살았지만 살리는 영을 잃었다. 저들은 우리의 육을 입고, 우리는 저들의 영을 덧입는다(고후 5:2-4; 고전 15:51-54). 그래서 저들도 우리의 육체가 아니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고 한 것이다.

비판 : 하나님께서 율법 시대의 신자들에게 주신 은혜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차이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는 것이라고 칼뱅은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두 한 몸으로 결합시키려고 하셨기 때문이며,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조상들에게는 조금의 은혜만 주어서 그 완전한 성취를 우리 시대 즉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시대까지 연기하셨다는 것이다. 그들이 아직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구절은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선언된 최후의 성취에 관련해서 이해되어야 한다.

3. 부차적인 내용과 그에 대한 비판

1) 사 34:16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주장 :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말씀들이 반드시 짝이 있다.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하고, 성경의 문제는 성경에 답이 있다. 구약의 짝은 신약에 있고, 사복음의 짝은 계시록에 있다. 例) 창 14장 멜기세덱=히 7장 예수 그리스도, 창 16-21장 아브라함의 두 여자=갈 4:21-24, 신 25:5 소=고전 9:9 목자, 출 34장 광채를 가린 수건=고후 3장 수건으로 가려진 구약, 출 25장 장막=히 9:9 비유, 출 14장 홍해=고전 10:2 세례, 출 16장 만나=요 6장 예수님이 산 떡, 출 17장 반석=고전 10:4

비판 : 본문에서의 "짝"은 그런 의미가 아니다. 윗 절에 언급한 내용과 연결하여 문맥 속에서 생각하면 여기서 말하는 "짝"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각양 짐승들의 "짝"임을 알 수 있다. 물론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하며, 구약과 상응하는 신약에서의 교훈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만, 본문에서의 "짝"은 그런 의미가 아니다.

2) 사 46:10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주장 :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 날에 있어질 장래사를 처음부터 고하셨다고 하심같이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부터가 바로 새 하늘 새 땅을 창조할 것에 대한 대 선언이며, 하나님도 '모략'을 베푸시는 분이듯이 우리도 전도할 때에 '모략'전도를 해야 한다. '모략'이 일을 몰래 꾸민다는 뜻이듯이 우리의 전도 방법도 이제는 철저히 신분을 숨기고 거짓으로 접근하여 친분을 쌓은 후 은근히 성경공부로 유도해야 한다.

비판 : 모략(애차)counsel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전형적인 오해요 거짓을 진리 증거의 수단으로 공공연하게

주장하는 이단적인 적용이다. '애차'는 하나님과 관련하여 쓰일 때에는 하나님의 뜻, 계획 같은 의미이다. 그래서 새번역에는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 있다.

II. 저들의 주장의 요점

1. 기성교회에 대한 적대감

기성교회를 멸망할 바벨론으로 여기고 있다. 물론 교회의 부패가 극에 달했던 종교개혁 당시에 부패한 로마 가톨릭을 향하여 열광주의자들은 물론이려니와 심지어 종교개혁자들 중에서도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다. 하지만 기성 교회를 적대시하는 이런 표현은 대단히 조심스럽게 써야 할 표현이다.

2. 비유풀이식 해석

1) 인명과 지명을 빙자한 비유

성경에서의 거의 모든 표현을 비유로 여기면서 저들의 비유풀이 방식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려고 할 때 무리가 따른다. 실례: 말 4:5에 대한 해설에서 엘리야와 세례요한에 대한 해석

2) 이중 적용

예언의 1차 적용을 넘어 2차 적용에로 나아가면서 결국에는 교주 이만희에게로 이끈다. 구약에서의 예언을 일단 예수님에게로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 하지만 재림하실 예수님 혹은 그 시대에 적용해야 할 내용들에서는 예외 없이 '보혜사,' '이긴 자,' '새 요한'이란 표현으로 이만희에게로 집중시킨다.

3. 교주 이만희에게로 귀결

1) 보혜사

예수께서 직접 언급하신 보혜사 성령이 바로 이만희라고 주장한다. 요 14:16-26에 대한 해설 참조.

2) 재림주

구약에서의 메시야 예언을 예수님에게로 집중시키면서도 재림하실 예수님과 관계된 모든 것을 이만희에게로 집중시킨다. 재림과 연관하여서는 더 이상 예수님은 없다. 영으로 표현되면서 마치 이만희에게로 와서 영적으로 혼인하여 하나가 된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 사 62:1-5에 대한 해설에서.

3) 이긴 자

요한 계시록에서의 이 표현(2:7, 3:5, 21:7)을 이용하여 그 '이긴 자'가 바로 이만희라고 주장한다. 이사야 1:1-2:4 해설에서 실명을 거명하며 주장한다.

4) 새 요한

요한 계시록이 저들 교리의 주요 발판이 되는데, 요한은 비유였고(인명 혹은 인물을 통한 비유) 그 실체가 되는 인물이 바로 '새 요한'으로서 이만희라는 주장이다.

4. 선민의식

계시록에서 말하는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적용하여 그 실현을 기대한다. 호 2:16-19과 학 2:23 해설에서.

맺음 말

아주 당돌한 이단, 교회를 자신의 일터로 여기는 신천지 이단의 성구풀이와 그 주장을 살펴보고 그에 대하여 비판하였다. 이들은 무지하여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이단적으로 주장하는 이단이 아니라, 철두철미 의도적으로 교주 이만희를 재림주로 주장하는 이단이다. 이들의 성경해석 방식의 기본이 되는 비유풀이에 대하여 바르게 비판하고, 그들이 그런 방식으로 이끄는 교주 이만희에로의 집중을 비판할 수 있어야 하겠다. 건전한 교리의 바탕 위에서 성경을 바로 읽고 깨달아 살아야 하겠다.

사이비 종교집단
'신천지' 비유풀이의 실제의 예

발제자: 신현욱 소장

1982년 예장(합동) 한민교회에서 수세
1986년 신천지 입교
1987년 신천지 지교회 전도사
1988년 신천지 본부청년회장
1992년 신천지 요한지파 새빛교회 담임강사
1995년 신천지 총회 교육장
2006년 11월 신천지 탈퇴
2007년 한기총에서 공식 탈퇴기자회견
2012년 예장 총회 신학원 졸업

현, 예장(합동) 초대교회 담임교역자
현,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 구리상담소장
신천지대책전국연합 대표

Ⅰ. 신천지 비유론<신천지 강의안>
1. 비유한 씨, 밭, 나무, 새
2. 비유한 그릇, 저울, 지팡이
3. 비유한 불, 향로, 가마
4. 비유한 물, 샘, 강

Ⅱ. 신천지 비유론 비판
1. 비유한 씨
2. 비유한 지팡이
3. 비유한 불
4. 비유한 물
5. 결론

Ⅰ. 신천지 비유론

1. 비유한 씨, 밭, 나무, 새

1.본 강의의 핵심 및 교육의 목표

- 모든 비유풀이의 기본이 되는 씨의 비유풀이 과목이다.
- 씨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 영적인 종류의 두 가지를 확실히 구분한다.
- 비유풀이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유도한다.
- 비유풀이는 천국비밀을 여는 방법이라는 것을 재 인식한다.
- 비유풀이의 맛을 느끼도록 최대한 극대화를 유도한다.
- 씨, 밭, 나무, 새의 정확한 이해로 천국을 이해하도록 한다.
- 새 = 영, 계시록의 나무가 사람이다.
- 본과와 관련된 주 재림 때 사건, 4복음과 계시록을 이해한다.
- 구약은 뿌릴 것 예언, 예수님은 뿌리고 거둘 것을 예언, 약속된 재림때는 추수하여 거둔다
- 알곡과 가라지는 추수때에 예수님이 뿌린 밭에 가서 가른다

2. 강조할 부분

- 앞전과목 약간 복습하고, 본과목 진행한다.
- 자연계의 이치와 특성을 충분히 설명한다.
- 씨의 특성과 차지하는 중요성
  - 생명의 근원, 종족 번식, 작다.
- 씨의 종류가 두 가지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나무도 새도 두 종류로 구분된다는 것을 확실히 설명한다.
- 모든 비유의 근본이 씨의 비유, 씨 속에 생명 있다.
- 반대인 사단의 경우도 마찬가지다는 것을 인식시킨다.
- 씨와 열매는 형상이 같다. (심은 대로 거둔다)
- 한밭에 두 가지 씨와 추수 때 알곡과 가라지의 입장을 확실히 설명한다. (씨뿌림의 이치, 추수 때 약속)
- 씨가 두 개이므로 아버지도 둘이다.
- 좋은 씨로 난 자 천국의 아들들, 가라지로 난 자 악한자의 아들들
- 추수 때 곳간과 불사름으로 나뉨
- 씨, 밭, 나무, 새의 예언과 실상의 관계를 정리해서 설명한다. 비유한 천국의 이해 (비유 성구 이해)
- 씨가 비유니 나무, 새도 비유라는 것을 인식시킨다.
- 씨에 따라 나무의 지체가 2가지 어떤 씨로 된 나무냐에 따라 임하는 영이 다름

3. 교육시 주의해야 할 부분

- 창세기의 내용을 언급하는 사항을 주의할 것 (생명나무, 선악나무, 무화과나무 등)
- 엘리야의 까마귀 언급을 금한다.
- 이러한 비유를 모른다고 해서 너무 잘못됐다고 직접적으로 매도하지 말 것. ex) 이것도 모르느냐 ?
- 비유로 된 천국 설명할 때 천국 강조 조심할 것.
- 가지, 잎사귀, 열매 설명시 구약예언부분과 신약에 내용 혼돈주의

4. 기존 신학의 일반적 견해

- 씨를 구분 못함. 그러므로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그냥 믿는다. 두 가지인줄 모른다. 아버지가 둘 인줄 모른다.
- 씨가 말씀이라는 정도는 이해하며, 두 종류의 씨의 구분을 인식하지 못한다.
- 밭을 불신세계의 사람으로만 인식하고 있다.
- 나무를 요 15:1의 포도나무 곧 예수님 이라는 정도로 인식한다.
- 참, 거짓을 분별하는 개념이 없다.
- 열매를 실체의 열매로 알고 있다. (창 2: 생명나무, 선악나무 과일)
- 열매를 행위로 본다 (마 17 : 6)
- 입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씨가 달라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믿는다.
- 밭(예수님 세계)에만 있으면 다 곳간에 들어간다고 가르친다.

5. 설명시 나타나는 일반적 반응

- 비유풀이의 맛을 조금 표현
- 신기하게도 생각
- 깨달음이 빠른 사람은 이 과목 듣고 분별하는 사람도 있다

6. 던질 수 있는 질문 및 의문점 제시

- 생명나무와 선악나무 과일들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실제의 과일이라고 생각하는가 ?
-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밭이 하나님의 교회라면 추수는 어디서 하는가 ?
-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는 무슨 씨인가 ?
- 사 55:12 (산들아 노래를 발하고 나무가 손바닥 친다.)

7. 필수 암송 성구

마 13 : 31- 32, 눅 8 : 11, 시 126 : 5 - 6, 렘 31 : 27, 마 13 : 24 - 25, 마 13 : 37 - 38, 요일 3 : 9 -10, 막 4 : 14, 눅 8 : 15, 고전 3 : 6, 9, 요 15 : 1 - 5, 사 5 : 6 - 7, 겔 31 : 3, 9, 단 4 : 20 - 22, 계19 : 17, 마 3: 16, 계 18 : 2, 창 1: 26 -2 8, 갈 4 : 19

8. 교육 후 문제점(점검)

- 사과나 과일을 직접 단상에 올려놓고 강의해도 효과 극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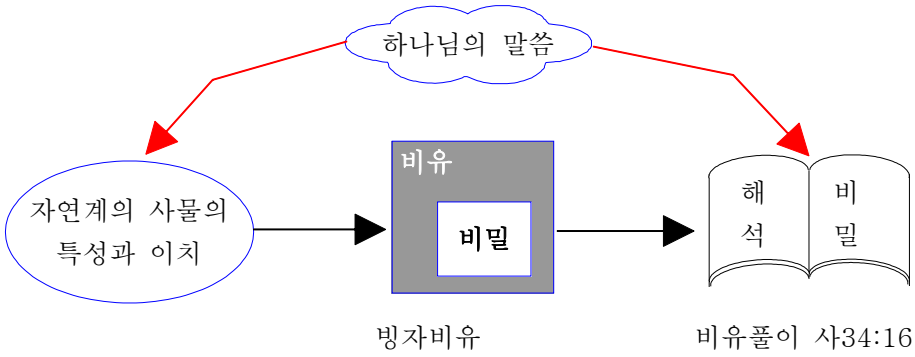
9. 속담 인용

- 콩심은데 콩나고 팥심은데 팥난다
- 가지많은 나무 바람잘날 없다
-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
- 될성싶은 나무 떡잎부터 안다
- 말이 씨가 된다
- 새도 앉을 자리를 보고 앉는다

비유한 씨, 밭, 나무, 새

▣ **본론**

※.비유란 ? 롬1:20



보이는 것:육적인 것:땅의 것 → 요3:12 ← 보이지 않는 것:영적인 것:하늘의 것

사람 육적, 땅의 차원 ⇨ **하나님** 영적, 하늘의 차원

▣ **비유 성구 : 마13:31~32 천국 ⇒ 씨, 밭, 나무, 새 (비유)**

1. 비유한 씨 ⇒ 말씀

- **특성: 생명의 근원, 시작**
- 욥42:3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욥38:2)
- 눅8:11 씨 = 하나님의 말씀
- 벧전1:23 썩지 않는 씨 =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영원한 생명의 말씀
- 막4:13~14 씨뿌리는 비유 → 알아야 할 모든 비유
  뿌리는자(농부) → 씨 → 뿌린다 → 밭
  목자 →말씀 → 전한다 →마음
- 시126:6~6 씨(말씀) → 뿌린다(전한다)
- 요1:1~4 말씀(생명) → 씨(비유)

※씨의 종류 ①. 하나님의 씨 ⇒ 하나님의 말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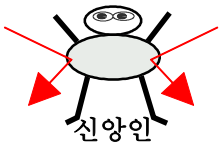
②. 사단의 씨 ⇒ 사단의 말(비진리)

- 렘31:27 마13:24~ 벧전1:23

  비유 ⇒ • 사람의 씨 (인자): 좋은 씨 :썩지 아니할 씨 ⇒ 하나님의 말씀

  • 짐승의 씨 (서기관과 바리새인): 가라지 : 썩어질 씨 ⇒ 사단의 말, 비진리
- 밭: 교회: 이스라엘 집, 제 밭: 신앙 세상

※.말씀(씨)의 중요성

•요일3:9~10 하나님의 씨 

사단의 씨

↓

•요8:38~44 (초림의 예)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

2. 비유한 밭 ⇒ 마음, < 교회 < 신앙세상

- **특성: 씨가 뿌려진 곳(추수)**

•눅8:15 좋은땅 : 착하고 좋은 마음

•마13:38 밭 : 세상(예수님을 믿는자)

예수님의 세계: 예수님의 세상:

•고전3:6~9 바울 → 말씀 → 전함 ⇒ 성도의 마음

농부 → 씨 → 심었다 ⇒ 밭

건축자→ 말씀 → 짓는다 ⇒ 집(성전)

3. 비유한 나무 ⇒ 속사람, 목자

- **특성 : 씨가 자라서 된 것**

•사44:23 나무 :노래

•사55:12 나무 : 손바닥을 친다

•사5:7 나무 = 유다사람

•사61:3 그들로 = 의의 나무

•겔31:3 앗수르 사람 = 백향목

- 9 나무 : 투기

- **사람을 나무로 비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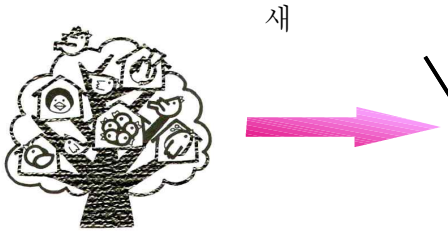
•나무 = 목자 요15:1 예수님 =포도나무

•가지 = 제자 요15:5 제자 = 가자

•잎 = 전도자 계22:2 전도자 = 잎사귀 :만국소성

•열매 = ①말씀 ②성도 약1:18 진리의 말씀 =첫 열매

새 영



나무 속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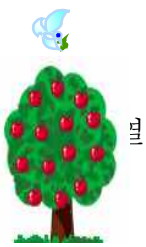
씨 (땅) 말씀(마음)

4. 비유한 새 ⇒ 영(靈)

- **특성 :장성한 나무에 깃들인다.**

•마3:16 성령 = 비둘기

•계18:2 더럽고 가증한 새 = 귀신,악령



새= 성령
열매=①성도②말씀
잎 = 전도자
가지= 12제자
나무 =참목자

예수님(진리) = 천국
하나님의 씨 (생명)
생명나무

새=악령
열매=①성도②말씀
잎= 전도자
가지=제자
나무=거짓목자

서,바(비진리) = 지옥
사단의 씨(사망)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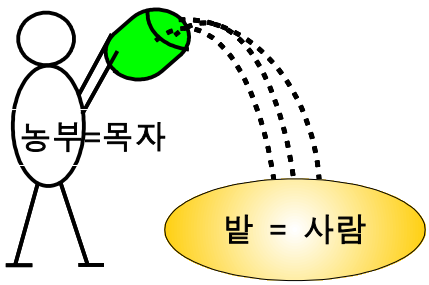
□ 밭의 종류 : 마13:3~9 비유 → 마13:18~23 해석

•씨 →천국말씀 ①. 길가 ;새 → 깨닫지 못함 :악한 자

•밭→씨가 떨어진 곳 ②. 돌밭 :해 → 환란, 핍박 : 넘어지는 자

↓ ③. 가시 밭:가시→ 세상 염려, 재리 유혹 :결실×

•마음→말씀들은 자 ④. 좋은 땅:결실 → 깨닫는 자 : 결실 (백배, 육십 배,삽십 배)



비 유 론

2. 비유한 그릇, 저울, 지팡이

1. 본 강의의 핵심 및 교육의 목표

- 계 15 : 7 대접의 이해 → 천사(영)는 육(대접)을 들어 역사
- 마 13 : 47 그릇(성전)의 이해
- 계 16 :6 밀1되, 보리3되 ⇒ 사람
- 계 6 :5 흑마 탄자의 저울(계시록에서의 저울 이해)
- 계 11 : 1 갈대 지팡이, 계2 : 27 철장의 이해
- 예수님 성취 - 그릇을 비우게 하고 (묵은 것) 새것으로 채워주는 역사
- 새 포도주(새 부대), 묵은 포도주(헌 부대)
- 저울질, 달아본다는 것은 판단하고 심판하심을 비유한 것

2. 강조할 부분

- 토기장이 = 흙(사람) + 물(말씀) + 불(말씀) = 그릇(택함받은 사명자)- 흙이 그릇이 아니다
- 그릇속에 들어있는 내용물에 따라서 그릇의 용도와 이름이 결정됨- 2종류의 그릇(영적)
- 저울은 사람의 마음, 행동, 믿음을 측량하는 심판의 말씀
- 저울(영적2가지) : 어떠한 추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2가지가 나뉘움
- 지팡이는 말씀, 말씀가진 육체 (민17 : 2 - 11, 예수 = 지팡이)
- 철장 = 쇠 지팡이 = 말씀 (계 2 : 17)
- 육적 특성을 충분히 설명 : 영적 이해 도움
- 지팡이(말씀, 사람)는 튼튼한 것을 의지해야 함

3. 교육시 주의해야 할 부분

- 지팡이 같은 갈대에 있어서는 두 증인과 결부시켜서 설명하지 말것

4. 기존신학의 일반적 견해

-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 그릇이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
- 저울, 지팡이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인식도 못함
- 저울 - 신앙인이 자기중심 - 자기가 사용하는 추가 모두 정확한 줄 안다
- 기근 - 마지막 때는 정말 밀 1되, 보리 3되만 남는다고 말세의 징조를 가르침

5. 설명시 나타나는 일반적 반응

- 저울, 지팡이의 영적 해석을 생소하게 생각하며 지팡이 설명을 조금 어렵게 느낌

6. 던질 수 있는 질문 및 의문점 제시

- 육적인 저울로 영적인 것을 측량할 수 있는가 ?
- 계 2 : 27 이긴자에게 주는 철장은 무엇인가 ?

7. 필수 암송성구

계 15 : 7, 렘 48 : 11 - 12, 롬9 : 21 - 24, 행 9 : 15, 눅 5 : 37 - 38,
마 23 : 25 - 26, 계 6 : 5, 잠 24 : 12, 시 62 : 9, 계 11 : 1 - 2,
계 21 : 15, 계 2 : 27, 출 12 : 11, 시 23 : 4

8. 교육 후 문제점(점검)

9. 속담 인용

- 대기만성
- 빈 그릇이 요란하다
-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 도마 위에 올랐다
- 재수 없으면 접시 물에 빠져 죽는다
- 열길 물 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을 모른다

비유한 그릇, 저울, 지팡이

▣ 본론

1, 비유한 그릇(대접,말,되,병,부대,향로)⇒ 人의 마음 (사명자)

- 특성: 담는다(도구) : ⇒ 토기장이 : 흙+물+불 = 그릇
  하나님 : 人 +말씀 = 사명자, 일꾼

□ 비유성구:계15:7 7천사 → 하)의 진노 → 금 대접 일곱 → 땅
7영 말씀 그릇: 사명자 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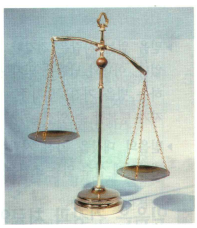
- 롬9:21~24 토기장이 → 부르신 자들, 택한 자들 → 이방인, 유대인
  하나님 그릇: 사명자 흙
- 사64:8 하)토기장이 → 진흙+물+불 ⇒ 그릇
  사람 +말씀 ⇒ 사명자
- 행9:15 예수 → 바울(그릇) ← 말씀, 복음 → 이방인, 임금, 이스라엘
- 렘48:11-12 그릇을 기울일 자를 보낸다
- 눅5:37-39 묵은 포도주(율법) → 낡은 부대(낡은 마음)
  새 포도주(진리) → 새 부대 (새 마음)

2. 비유한 저울 ⇒ 믿음 다는 심판의 말씀

- 특성: 무게를 달아본다.(저울질: 무겁다- 가볍다)

□ 비유성구: 계6:5~6 검은말\탄자 → 저울 → 밀1되 보리3되
심판의 말씀

- 잠24:12 마음을 저울질하는 하나님
- 욥31:6 공평한 저울 - 정직함심(心)
- 삼상2:3 행동을 저울질(달아봄)
- 시62:9 저울질 - 경하다(심판받음)
- 단5:27 데겔 -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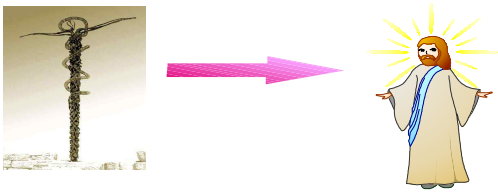


※. 사단의 저울

- 잠11:1 공평한 추 → 공평한 저울 (하나님)
  공평치 못한 추 → 속이는 정루(사단)
- 호12:7 상고(목자) - 거짓저울(거짓교리) - 사취(미혹 받음)

3. 지팡이 ⇒ ①말씀 ②목자(人)

- **특성: 의지한다. 치리자의 상징**



□ 비유성구:계2:26~27 하나님 → 예수 → 이긴 자(철장) – 질그릇 깨뜨림

요17:2,8 말씀(철장) → 철장(쇠 지팡이) → 사람 심판

① 말씀 ⇒ 지팡이

•사11:4 입 : 막대기 → 세상을 친다

입술의 기운(말씀) → 악인죽임(심판)

•렘23:29 하나님의 말씀 → 불, 방망이

•시23:3~4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 안위(지켜주신다)

•출12:10~11 허리에 띠 → 발에 신 → 손에 지팡이

•엡6:10~17 진리의 띠 → 복음의 신 → 성령의 검(하나님의 말씀)

② 말씀을 소유한 사람 ⇒ 지팡이

•민17:2~10 12지파 두령; 12지팡이: 살구열매 → 아론의 지팡이(예수님 =생명나무),싹,꽃,열매: 증거의 장막

•히9:1~5,9~ 장막 = 비유(장막 안에 있는 것 = 실체)

•계11:1 사도요한+ 지팡이 같은 갈대(사명자, 육체)

•왕하18:21 애굽 왕 바로 = 갈대 지팡이

비 유 론

3. 비유한 불, 향로, 가마

1. 본 강의의 핵심 및 교육의 목표

•계8:, 9:, 11:, 13:, 16: 계시록의 불에 대한 이 해 - 말씀 심판

•벧후 3:7-, 10- 오늘날 불심판은 영적인 말씀 심판이다

•렘 1:13의 끓는 가마 ⇒ 조직체

•향로 계 8:, 5: 의 이해

•영적 불2가지 : 죄와 더러움을 소멸하는 성령의 불과 생령인 속사람을 죽이는 악령의 불

• 심판 받는 사람의 마음 = 땅의 지진

2. 강조할 부분

•기성교회에서 말한 불심판에 대해 먼저 설명하고 영적 불과 비교 -불은 심판의 말씀

•가마는 조직체 = 성읍, 고기=성도

•초림과 재림의 예언대로 성취된 불심판에 대한 이해를 확실히 인식 시켜야 함

•향로 = 사람(목자), 향 = 기도, 향연 = 기도의 상달

•영적 산 제사의 의미
(이방인의 제사 조금 언급 - 조심스럽게)

•향로 - 불을 담는 그릇
(향로를 쏟으면 불이 쏟아짐)

•향(기도) - 말씀이 없는 기도는 상달되지 않음 (일방적 외치는 기도 - 사16:12)

3, 교육시 주의 해야 할 부분

• 타교회를 지나치게 비판, 정죄 하는 것은 금지

• 역사적 사실 (소돔, 고모라에 대하여 비유와 연관 지어 강조하지 말 것)

• 불심판에 대해 육적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영적인 것을 드러내도록 해야 한다

• 가마에 대하여 큰 비중을 두지 말 것

• 불심판 - 초림의 영적 불심판을 확실하게 설명 해서 재림의 사건을 이해 (예언과 실상)

• 제사 언급시 현 기성교단의 교리를 비난, 비판 하지 말 것

•교회 조직을 비판하기 보다는 개개인의 잘못된 기도습관에 대하여 실예를 들어설명. 무조건 잘못되었다는 것보다 때를 따라 다르다는 것설명

4. 기존 신학의 일반적 견해

• 불심판⇒ 육적 심판인 지구의 종말, 핵전쟁으로 말함

• 불 = 찬송, 기도 등을 통해서 나타나는 영적 감동 상태로 인식

• 가마에 대하여는 생소함

• 향로(향) - 깊은 인식 하지 못하고 지난시대 율법 속에 있는 내용으로만 생각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음-영적 생소)

5. 설명시 나타나는 일반적 반응

• 가마, 솥, 남비는 생소하게 생각

• 불심판의 이해에 있어서 갈등하는 사람이 있다

• 생소하게 생각하여 향로, 향 설명시 이방인의 제사를 구분할때는 많은 진통과 갈등을 느낌

6. 던질 수 있는 질문 및 의문점 제시

• 과연 불심판은 지구의 종말인가?

• 벧후 3:8-12 의문점 제시 - 불의 역사

• 계8:3-5의 향로는 육적인 것인가?

7. 필수 암송 성구

눅12:49, 렘5:14, 슥5:1-4, 말4:1, 마3:11-12, 벧후3:7-12, 계11:4, 레10:1-2, 계8:5, 계5:8, 잠15:8, 29, 렘1:13, 겔24:3-6

8. 교육 후 문제점(점검)

9. 속담 인용

• 성질이 불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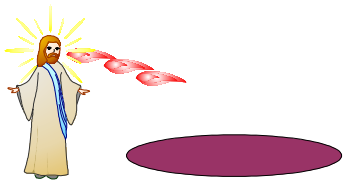
• 하늘천 따지 가마솥에 누룽지

비유한 불, 향로, 가마

▣ 본론

1. 비유한 불 ⇒ 말씀

• 특성: 태우고 사른다



□ 비유성구: 눅12:49 예수 : 불 → 던지다 → 땅

말씀 → 증거,전파→ 사람의 마음

①.하나님의 불 ⇒ 심판의 말씀

(구약 예언:비유)

•렘5:14 예레미야의 입 : 하)말씀 → 사른다 → 백성

불 → 심판 → 나무(렘5:1)

•슥5:1~4.두루마리(말씀) → 도적.거짓맹세의집.→ 사른다→나무.돌

불 렘23:29~30 사람

심판의 말씀 서,바 심판

•말4:1~2 극렬한 풀무불 같은날 → 악한자.교만한자 → 초개 같이 사른다.

하)이름 경외하는자 → 의로운 해 → 치료광선

제자들 예수 영혼 살린다

(초림때 성취)

•마3:11-12 예수:성령과 불세례(깨끗케 함)(요15:3)

키 → 알곡→곡간

말씀 쭉정이→불사름

(신약예언:비유)

•벧후3:10~13재림 때:불 → 사른다 → 하늘,땅

•벧후3:7 하)말씀→심판

•계11:3-4 두 증인:입 → 불사른다(소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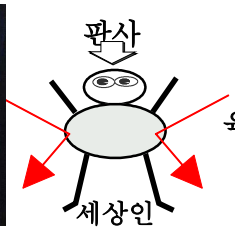
•요12:48 때 : 마지막 날

도구: 예수님의 말씀(신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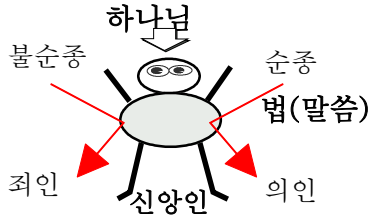
대상; 예수님 말씀 지키지 않는 자 (죄인)

•벧전4:17 하나님의 집 : 심판 시작 복음 순종 × = 죄인

복음 순종 ○ = 의인



육법전서



②. 악령의 불 ⇒ 거짓 교리, 비진리

•레10:1~2 다른 불:하)명하지 않은 불→향로

•욥41:1,18~21 악어의 입 → 횃불, 연기, 불똥

•겔29:3 바로=악어 = 거짓 목자

서,바(뱀) = 비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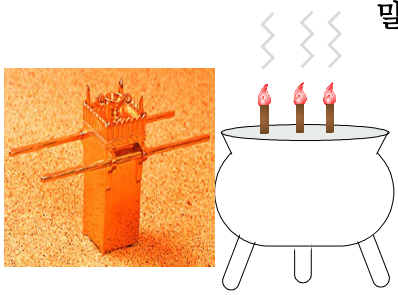
•계9:17탄자₩말 입 = 불, 연기, 유황(비진리) = 사람 1/3 죽임

2. 비유한 향로, 향, 향연 ⇒ 人의 마음, 기도, 기도가 상달 되는 것

- **특성 : 제사, ⇒ 구약: 육적 제사, 신약: 영적제사(롬12;1)**

□ 비유성구: 계8:5 천사 → 불 → 향로 → 불 → 땅: 지진

말씀 → 사람 → 심판 → 사람의 마음의 흔들림



•향연 : 기도가 천사로부터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계8:4)

•향 : 성도의 기도(계5:8)

•불 : 말씀 (렘5:!4) { 진리(하나님의 뜻) / 비진리(자기의 뜻)

•향로 : 사람의 마음

•레10:1~2 여호와의 명하지 않는 다른 불 - 죽음

•딤전4:5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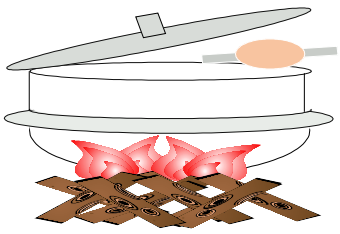
3. 비유한 가마, 솥, 냄비 ⇒ 성읍, 교회

- **특성 : 내용물을 담아 불로 삼는다.**

□ 비유성구: 렘1:13 끓는 가마(북) → 재앙/70년→ 예루살렘(남)

바벨론 선민

- 겔24:3~6 .겔11:3~7 . 미3:1~



- 양고기 = 백성
- 가마 = 성읍, 교회
- 불 = 말씀 하나님의 불
  사단의 불
- 나무 = 목자

비 유 론

4. 비유한 물, 샘, 강

1. 본 강의의 핵심 및 교육의 목표

- 계11:, 12:, 16:, 18: 계시록에 담겨져 있는 뜻을 이해
- 계22:1-2 과 겔47:1-12의 이해
  (오늘날의 보좌에서 흐르는 생명수 이해)
- 우리 영혼을 살리고 죄와 더러운 심령을 깨끗케 하는 생명의 말씀을 모든 생물에게 생명을 주고 더러움을 씻는 육의 물로 비유한 것
- 다음 시간 바다, 어부, 그물, 고기, 배와 연관지어 므로 쉽게 이해 - 물 설명시 시간이 一 비중을 두어 영적 물의 소중함 확실히 인식
- 하늘 문 닫고 구름 명하여 비 내리지 않는 곳은 어떤 곳인가? (말씀 불순종자)
- 물세례의 영적의미에 대해 영적의미 정확한 설명

2. 강조할 부분

- 육적 특성 설명을 통해 영적인 속뜻의 이해를 도움
- 물의 두 종류를 정확하게 분별해서 생각을 씻어 주어야 한다
- 물에 따라 샘, 강을 구분하여 물이 샘에서 흘러 강을 통해 바다로 흐르는 이치를 정확하게 심고 물의 중요성을 강조
- 암8:11의 기근, 기갈 - 마지막 때 진리× (물, 양식×) 기근, 기갈이 있을 것을 예언
- 물=말씀으로 어떻게 해야 깨끗해지는가 - 진리를 깨닫고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 - 죄, 더러움 씻음 (벧전1:22)
- 샘이 열릴 때가 있다(그래야 죄, 더러움 씻을 수 있음)
- 샘에서 솟아나는 물이 바다에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강을 통해야 함
- 성전의 물 - 살려주는 물 ⇒ 바다 : 물(원래 있던 물이 소성함)
- 물이 가는 길=강, 말씀을 사람의 마음 강 삼아 물 곧 말씀이 전파됨

3. 교육시 주의해야 할 부분

- 물을 설명할시 사5:6의 구름에 대한 부분을 예수재림사건과 연결시켜서 하지 말 것 - 구름 설명시 각별히 조심
- 사단의 물 설명시 계12:15 뱀의 구체적 의미 설명 삼가
- 계22:1 생명수의 강 설명시 겔47:12과 연결 소개 정리
- 영적 세례 부분 조심스럽게 이끌어 내서 이해시켜야 함
- 샘 = 목자 설명시 조심 (자극적인 것은 삼가)

4. 기존 신학의 일반적 견해

- 계22장을 천국의 실질적 강으로 인식
- 물세례 - 육적으로 행하고 알고 있음
- 육적으로 세례 받으면 구원과 일치하여 죄, 더러움을 씻었다고 의심치 않고 있음
- 샘에 대해서는 생소함(언급×)
- 계시록의 보좌 : 생명수, 강, 물, 샘 - 무지, 언급×

5. 설명시 나타나는 일반적 반응

- 대체적으로 이해를 할려고 노력함
- 세례 부분 - 질문을 통해서 확인하는 사람도 있다

6. 던질 수 있는 질문 및 의문점 제시

- 기근과 기갈 : 암8:11, 마24:6 소개 : 육적인가 아니면 영적인가?
- 성전 문지방에 물이 흐르는 장면
- 요4:14 예수님께서 다른 샘 소개 - 무엇인가?
- 물세례 (요15 : 3)
- 샘이 열리는 때 (슥13 :1)
- 계시록의 보좌에서 나오는 생명수는?

7. 필수 암송 성구

계 22 : 17, 신32 : 2, 암 8 : 11, 렘2:13, 계8:10, 잠10:11, 고전10 : 4 요4 : 14, 벧후 2 : 17, 계 16 : 4, 겔 47 : 9 - 12, 요 7 : 37 - 38, 계22 : 1 - 2, 계12 : 15

8. 교육 후 문제점 (점검)

9. 속담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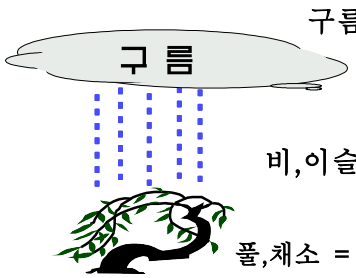
- 우물안의 개구리
-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 우물에서 숭늉 찾기
- 목마른 사람이 샘 판다

비유한 물, 샘, 강

▣ 본론

1. 비유한 물 ⇒ 생명의 말씀

- 특성: 생명의 근원, 씻는다(세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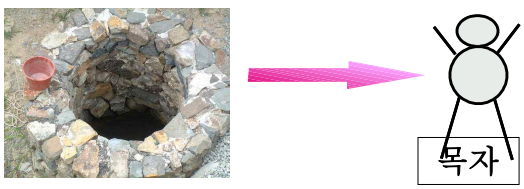
□ 비유성구: 계22:17 듣는다, 목마른 자 – 생명수

①. 하나님의 물 ⇒ 생명의 말씀(생명수, 상수)

- 신32:2 하늘 구름
  말씀 → 비(이슬, 물)
  백성 채소, 나무 (사5:7 포도원 = IS족속)
- 계11:6 하늘을 닫아 비(말씀) 내리지 ×
- 암8:11 육적: 물, 양식 → 육적 기근, 기갈 - 먹는다
  영적: 말씀× → 영적 기근, 기갈 - 듣는다
- 요15:3 예수님의 말씀 → 깨끗하여짐(영) → 예수님 안에 거함
- 벧전1:22 진리를 순종 → 영혼이 깨끗하여짐(딤전4:5 말씀과 기도로 거룩)
- 고전3:6~9 바 울 : 씨 → 심었다 → 밭
  아볼로 : 물 → 주었다 → 제자들(人)
  하나님의 물 ⇒ 생명의 말씀
  사단의 물 ⇒ 비진리 (죽은 물, 하수)

2. 비유한 샘(우물) ⇒ ①목자 ②성전

- 특성: 물일 나오는 곳(물의 근원)



□ 계8:10~ 하늘의 별(쑥) → 물샘, 강 : 쑥물→ 죽는다(렘23:13~16)

(구약예언)

- 잠10:11 의인의 입 → 생명의 샘 : 물
  악인의 입 → 독의 샘 : 물

- 출15:27 물샘12, 종려70주 (12제자, 70문도)
- 슥13:1 샘(예수) → 물(말씀) → 죄와 더러움을 씻는다(세례)
- 사12:3 구원의 우물(예수) → 물: 구원
- 렘14:1~4 가뭄 -> 예루살렘 - 귀인 - 사환 - 물 - 우물 - 빈그릇

(초림성취)

- 요4:13~14,요15:3 예수 → 샘물 → 영생수 → 마음의 악을 씻는다(렘4:14,요15:3)

하나님 ↓ 예수(샘) → 물(진리) : 목마르지 않음 ↓ 12제자(샘) ↓ 70문도

마귀 ↓ 서,바(샘) → 물(비진리): 목마른다

3. 비유한 강 ⇒ 제자, 전도자

- **특성: 물이 흐르는 곳(길)**
  ㄴ영적: 말씀을 전하는 제자와 전도자

(구약예언)

- 겔47:1~12 성전 문지방 → 물 → 강 → 바다 : 물이 소성
  (샘)예수 → 말씀 → 제자 → 세상: 비진리 소성됨
- 요7:38 예수: 말씀 → 제자 : 말씀 → 세상 사람들 (증거현재)

(신약예언)

- 계22:1~2 보좌(렘2:13) → 생명수 → 길 가운데로 흐른다(전해진다)
  ㄴ 샘 → 생명의 말씀 → 제자

※.사단의 물, 샘, 강

① 사단의 물 ⇒ 비진리

- 사1:22 네 은은 찌끼가 되었다. 25. 회복 (찌끼를 제함. 혼잡물을 제함)
  (포도주 + 물이 썩었다. 진리 + 사람의 계명)

② 사단의 샘 ⇒ 거짓목자, 교회

- 벧후2:17 물 없는 샘 = 어두움

③ 사단의 강 ⇒ 전도자, 제자

- 계12:15 뱀의 입(강) - 강물(거짓말)
  서기관과 바리새인바 → 뱀의 독
- 겔29:3 바로(악어) 자기의 강들 = 제자, 전도자

Ⅱ. 신천지 비유론 비판

1. 비유한 씨란 무엇인가?

막4:13 눅8:11 벧전1:23 시126:5-6 렘31:27
하나님의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비유한 씨의 참뜻은 말씀이다.

비판: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는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신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성구에서의 씨도 모두 말씀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이만희 교주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렘 31:27)를 예수님의 밭의 가라지의 비유(마 13:24-30)와 연관지어 사람(인자:예수님)의 씨(좋은 씨)와 짐승(용=뱀:사단=마귀)의 씨(가라지)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사단의 비진리의 말로 해석한다.

그러나 이 말씀은 "앞으로 이런 날이 오리라. 내가 분명히 말해 둔다.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을 사람이나 짐승 할 것 없이 씨를 뿌려 농사짓듯이 불어나게 하리라."(공동번역)는 해석에서 보듯이, 여기서의 씨는 '말씀'이 아닌 말 그대로 사람의 씨(자녀)와 짐승의 씨(새끼)이다. 곧 하나님의 심판으로 황폐해진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을 다시 번영케 해 주실 것이라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예언의 말씀일 뿐, 예수님의 가라지 비유와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다.

마태 13장에서 같은 씨와 밭에 관한 비유라도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와 '밭'은 '말씀'의 씨와 '마음'의 밭이라고 해석해주셨지만(마 13:19-23), 다음에 말씀하신 '가라지의 비유'에서 '씨'와 '밭'은 '아들'과 '세상'이라고 해석해 주셨듯이, 비유는 베푸신 비유의 내용에 따라 그때그때 달리 해석되고 적용되는 것이지 한 가지의 해석된 내용으로 다른 비유에 획일적으로 적용하거나 대입해서는 안 된다.

2. 비유한 불은 무엇인가?

렘5:14 렘23:29 슥5:1-4 눅12:49 벧후3:7
불로 육을 사르듯 비유한 불은 영적인 속사람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비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범죄한 백성들을 심판함을 불로 나무를 사르듯 한다고 비유하신 말씀이 있다하여 예언이나 비유의 말씀가운데 나오는 불을 모두 말씀으로 이해할 수 없다. 이만희 교주는 말세에 관한 베드로의 예언인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 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벧후 3:7)는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으로 불사른다고 하셨으니 말씀을 불로 비유했다고 주장한다. 그 결과 말세의 심판은 불이 아닌 말씀으로의 영적 심판이니 이 세상 하늘과 땅은 영적으로 심판을 받을 뿐 육적으로는 아무런 징조나 변화도 없다고 가르침으로, 자신들이 처음 하늘과 땅이 없어지고 나타나는 새 하늘 새 땅의 실상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구절은 말씀을 불로 비유한 것이 아니라 육적인 불로 태워 심판 하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공동번역을 인용해보면 다음과 같다. "사실 하늘과 땅은 지금도 하나님의 같은 말씀에 의해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이 멸망당할

심판의 날까지만 보존되었다가 불에 타 버리고 말 것입니다."(벧후 3:7)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보면 '말세와 주의 강림이 어디 있느냐, 만물이 그냥 있지 않느냐'하며 조롱하는 자들에 대해서,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고 노아 때 물로 심판하신 것과 같이 세상 끝에도 기록된 말씀에 따라 천지(天地)를 불사르시겠다는 말씀이다. 이것만 보더라도 벌써 천지가 없어지고 신천지(新天地)가 열린지 올해로 30년째를 맞고 있다는 이만희 교주의 주장이 얼마나 허황되고 황당한 주장인지 알 것이다.

3. 비유한 물은 무엇인가?

신32:2 사5:6 암8:11 요15:3 벧전1:22 고전3:6-9 렘2:13 요7:38

모든 생물에게 생명을 주고 더러움을 씻는 물은 우리 영혼을 살리고 심령을 깨끗케 하는 생명의 말씀을 비유한 것이다.

비판: 말씀을 물로 비유한 경우가 있다하여 물이 모두 말씀을 비유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만희 교주는 비유한 물이 말씀이니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를 물이 흐르는 강으로 비유했다고 하면서 다음 성구를 인용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요 7:38) 그러나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생수의 강이 말씀(전도자)을 비유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을 통한 대속의 사역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두고 비유하신 말씀임을 알게 된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요 7:39) 이와 같이 앞뒤 문맥을 좇아 읽기만 해도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낱말 위주의 잘못된 비유풀이가 어떻게 성경을 왜곡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4. 비유한 지팡이

창49:10 출12:11 시23:4 겔29:6 사31:3 민17:2-11 히9:4 계11:1

사람이 의지하는 지팡이는 말씀과 말씀을 가진 사람을 비유한 것이다.

비판: 계시록 11:1의 사도요한이 받은 지팡이 같은 갈대와 두 증인= 두 감람나무의 실상을 이만희(새 요한)와 홍종효(지팡이)로 주장하는 신천지는 이 같은 소위 실상 교리를 뒷받침 하는 수단으로 아전인수(我田引水) 격의 비유풀이를 동원하는데, 그 좋은 예가 바로 '비유한 지팡이'이다. 강의 시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겔 29:6)를 읽고 칠판에는 '애굽=지팡이'만을 기록한다. 다음은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사 31:3)만을 읽고 칠판에는 '애굽=사람'이라고만 기록한 후, 그러므로 '지팡이=사람'이라고 결론을 맺는다. 이는 마치 사람=동물, 개=동물, 그러므로 사람=개라는 논리와 무엇이 다른가?

인용하는 근거 구절 자체에 이미 화자(話者)의 의도가 충분히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전하고자 하는 것을 위해 성경을 억지로 꿰어 맞추는 꼴이다. 신에 발을 맞추는 격이라고나 할까? 인용했던 구절을 다시 구절과 함께 다시 보자.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겔 29:6-7)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된 내용이 있다. "보라 네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사 36:6) 이상과 같이 이스라엘에게 힘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해가 될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뜻으로 애굽을 상한 갈대 지팡이로 비유(직유)하여 말씀하고 계심에도 가장 핵심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상한 갈대를 삭제하고 지팡이만을 빼내어 애굽과 연결함으로 본문의 의미를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도 확인한 바와 같이 이만희 교주의 비유풀이는 성경대로 라고는 하나 성경 구절을 인용할 뿐 인용하는 성구 자체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근본적인 하자를 내포하고 있으니 여기서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지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문맥도 무시하고 문장도 무시한 채 그 가운데 자신들이 원하는 낱말만 뽑아내 다른 낱말과 연결하고 연결하는 식의 말장난에 불과하며 허튼 속임수에 불과한 것이다.

5. 결 론

성경을 해석함에는 단어와 문맥과 당시 시대적 상황이나 배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접근하는 것이 기본 상식이다. 그러함에도 신천지를 비롯한 많은 사이비 이단들이 이를 무시한 채 필요한 단어들만을 선별하고 연결해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다(원숭이-사과-바나나-기차-비행기-백두산).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도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을 성구를 이용하여 성경적으로 포장할 뿐 전혀 성격적이지 않다. 비유에 대한 해석은 획일적이지 않고 그 때 그 때 달리 적용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의도에 맞춰 성경을 단순히 낱말위주로 조잡하게 편집하는 식의 해석을 시도하다보니 논리의 비약 차원을 넘어 전혀 엉뚱한 내용으로 흐르게 되고 결국 거짓된 실상을 합리화하는데 이러한 식의 비유풀이가 요긴하게 활용되고 있는 셈이다. 이것은 지나친 알레고리적(풍유적) 해석이라고 하기에도 부끄러운 수준이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말장난에 불과한 허황된 비유풀이에 많은 성도들이 성경적이다, 처음 들어본다, 재미있고 쉽게 이해가 된다, 이렇게 공부하면 성경을 통달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과 반응을 보이며 미혹되고 있다는 현실이다. 이러한 성도들은 대부분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 성경적이라 생각하고, 생소한 내용을 접하면 조심하기 보다는 신비감을 갖는 등 단순한 사기 수법임에도 혹하는 것이다. 곧 성경적이라는 말의 오해와 비유에 대한 무지와 전통적인 해석에 대한 무시와 불신, 영적인 갈급함 등의 복합적인 요인이 쉽게 미혹되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저들이 노리는 것은, 성경이 비유를 통해 마지막 때까지 봉한 책이라고 인식케 하여 언젠가 누군가가 와서 계시를 받고 재해석해야 한다고 함으로써 재림 때 한 목자가 나타나야할 필요성과 함께 결국에는 이만희 교주를 다른 보혜사, 계시 받고 펴 놓인 책을 받아먹은 약속한 목자로 몰아가기 위한 수순에 불과한 셈이다. 그러나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거짓교리에 중독되어 헤어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성경 교리 교육의 강화, 성경해석에 대한 바른 이해 특히 성경적 비유풀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왜곡된 비유풀이에 대한 비교 등 예방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